

2015.03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NEWSLETTER Vol.8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효원경영
biz.pusan.ac.kr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효원경영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659~60,1678
팩스 051.581.3144
<http://biz.pusan.ac.kr>



효원경영

발행일 2015. 03
발행처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발행인 최중서
전 화 051.510.1659-60, 1678
팩 스 051.581.3144
편집장 김경영
편집원 임영주, 임현기, 이나현
디자인 더블비전

<http://biz.pusan.ac.kr>

Contents

Greeting

04 경영대학 진단 | 최중서

News Brief

08 주요 뉴스 | 교수 동정 | 장학 | 대학 행사 | 학생 수상 |
국제 관련 | MBA | AMP | 동문회

Introduction of Circles

20 별을 담다

Professor's Column

22 Who is responsible for CRM? | 홍태호
24 My Turning Point at PNU | 이연승

Alumni Column

26 제2의 인생, 학자의 모습으로 | 공경태

Academic Column

28 K-IFRS 도입 이후 영업권 손상인식의 재량이사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백정환

Celebrity Column

30 자극히 정성을 다하라! | 김종영

Professor's Hobby

31 플루트와 인간과 경영 | 이장우
32 바둑이야기 | 김정교

Student's Column

34 싱가포르 경영대학에서의 뜨거웠던 한 학기를 마치며 | 김경미
36 부산은행 취업수기 | 윤선영
38 위기의 대한민국 : 소비 부진의 늪에 빠지다 | 유상훈

Interview

40 학생회장 · 부학생회장 선출 소감 인터뷰

Participation

42 제2회 MBA주관 학술발표대회 수상 수기
| 이예지, 박현웅, 오승향, 김유빈
44 신한금융투자 대학생 주식모의투자대회 학교리그 부문 2등
46 LG 글로벌 챌린저 탐방기 | 성하람

48 경영대학 발전기금

55 편집후기

경영대학 진단

경영대학(원)장 최 중 서

효원경영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양의 해를 맞아 또 다시 바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은 국가적으로 유난히 사건, 사고가 빈발하였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공공부문, 가족공동체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위기가 발생하여 무질서와 혼란, 갈등과 불안이 사회 전체를 무겁게 짓누른 한 해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대표되는 미증유의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이런 일들이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자부하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과연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가를 자문해 볼 수 밖에 없는 참담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최근 모 경영월간지에서 한국개조론(Redesign Korea)이라는 제하에 특집 기사를 실은 것을 보았습니다. 기고문의 한 저자는 우리나라가 이른바 삶은 개구리 증후군(The boiled frog syndrome)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 변온동물인 개구리는 미지근한 목욕탕 속에 있다가 뜨거운 물이 계속 주입되어 온도가 올라가도 스스로의 체온을 조금씩 조절하여 적응하다가 마침내 물의 온도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생체구조가 파괴되어 갑작스레 죽고 만다는 것이 이야기의 요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만에 fast follower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최빈국에서 10대 경제대국의 문턱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었으나 혁신과 품질, 디자인, 기술력으로 세계 경제의 발전방향을 선도하는 first mover의 역량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경제 환경은 급변하는데 우리는 과거의 관행과 낡은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탄력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방치될 때 낙관적 미래를 예단할 수 있겠는가라는 위기감이 문제제기의 발단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러한 비유를 경영대학의 자화상에 대입해 보려 합니다. 경영대학의 전신인 상과대학은 7·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동남권뿐 아니라 전국 각지로부터 최상위권의 지원자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수도권에서 유학하는 것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던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 최상위 대학과 부산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질에 그다지 차이가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부산대학교는 전국 제2의 도시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학이 주는 경쟁력 덕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현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목욕탕 물의 온도는 서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90년대와 새천년을 맞으면서 전반적 국민소득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고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한 고졸자의 상당수는 부모의 등지를 벗어나 수도권 진학을 동경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한편 수도권의 중·상위권 대학들은 지난 수십 년간 치열한 경쟁을 거치면서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재벌이 대학을 인수한 이후 강한 개혁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괄목할 성장세를 보여 주고 있는 몇몇 사립대학의 사례는 재단의 개혁의지와 막강한 자본의 결합이 창출하는 성장 동력의 위력을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주요대학들에서는 경영전문대학원 설립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이들 기관이 궤도에 안착한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막대한 등록금 수입과 강력한 동문인맥의 형성을 배경으로 눈부신 물질·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주요 대학들 사이에 국제화의 일환으로 국제경영교육인증을 취득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현재 국내 주요 경영대학들은 인증을 받았거나 재인증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대학의 국제화 수준이 이제 괄목할 단계에 이르고 있음에 비하여 부산대학의 국제화지수는 아직 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 경영대학은 2010년 상과대학으로부터 분리·독립된 이래 불과 36명의 교수님으로 살림을 꾸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대학이 안고 있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경영대학은 인적, 물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영관 건물은 30년 이상 낙후되었으며 주요 경쟁대학의 시설에 비교하여 대외적으로 내세우기에 부끄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2013년에 경제통상대학이 국제관으로 이전하면서 공간 활용에 다소의 여유가 생겼다고 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공간채산제의 틀 속에 묶여 자유로운 공간운용의 여지는 다시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36명의 교수진은 2015년 현재 학부생 1,319명, 일반대학원생 169명, 경영대학원생 410명, 게다가 6개에 이르는 계약학과 89명의 지도업무를 분산 감당해야 하는 부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수 한 사람이 평균 55명의 학부 및 대학원생의 교육 및 연구 지도를 떠맡아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3차 고등교육기관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업무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수진이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에게 최신의 지식을 전수하고 양질의 연구결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을 풀가동해도 부족할 지경인데 다수의 이질적 프로그램이 공존하는 상황은 체제가 제공할 수 있는 일부 중단기적 효익에도 불구하고 교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제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정규 학위과정인 계약과정 업무에 여러 교수님들의 중요한 역량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정규일반대학원의 석·박사과정은 날로 위축되는 추세에 놓여있는 작금의 상황은 장기적으로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의 연구기반을

와해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심각한 우려마저 자아내고 있습니다.

둘째, 경영대학 내부에는 아직도 폐쇄적이고 소집단 이기주의의 관행이 잔존해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난 세월동안 부산대학교는 지역 맹주로서 주변으로부터의 실질적인 경쟁압력에 그다지 노출되지 않았습다. 이러한 분위기는 근거 없는 자만심과 무사안일주의가 뿌리내리는 토양을 제공했고 일부 구성원들로 하여금 넓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만의 아성을 구축하는데 경도된 나머지 권위의식과 아집에 사로잡혀 자성과 자기개혁의 계기를 간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경영대학에 수도권 대학들과 정면 승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구성원들이 이에 걸 맞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연구역량과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담보되지 않습니다. 엄격하고 가혹한 과정을 통하여 훈련과 검증을 거쳐야 하고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최신의 지식으로 재무장할 수 있도록 간단없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에는 국제적 명성을 구축하고 있거나 세계적 수준의 연구실적을 산출하면서 후학들에게 이정표가 되어 주고 상징적 사표가 되는 많은 학자들이 포진하고 있음을 봅니다.

경영대학이 국내, 나아가 국제적으로 선두권으로 발돋움하려면 이러한 역량 있는 학자들을 스스로 키워 내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외부로부터 과감히 영입해 오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영대학에 기왕에 적을 둔 구성원들은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업적을 산출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고 연구 결과를 수업에 환류시켜 강의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공법을 채택하는 대신 이를 우회하여 안이한 삶에 만족하고 우리가 선택한 삶의 방식을 정당화하려 해 왔던 것은 아닐까요? 학자이기 이전에 생활인으로서의 교수가 취미와 생각이 비슷한 동료들과 친목을 다지면서 안락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

정에서 형성되는 관계가 배타적 울타리가 되고 정치적 세력권을 형성하면서 경쟁력 있는 외부인사의 영입을 막고 대학의 대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야말로 대학의 장기적 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수의 본질적 사명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뛰어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데 있는 것이며 다른 요소는 부차적이어야 합니다. 본분을 도외시하고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집단을 형성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위적으로 군림하려는 자세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학의 구성원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외부로부터의 실질적 도전을 기꺼이 수용하며 원점에서부터 백의중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교육과 연구에 임하는 자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셋째, 암암리에 그들을 드리우고 있는 패배주의, 열등감, 적당주의야말로 경영대학이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장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부생의 상당수가 매 학년 초에 즈음하여 학교를 이탈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들을 붙잡을 만큼 강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대학의 책임도 크지만 당면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현상도피를 통하여 반전을 도모하려는 학생들의 사고방식도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감추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배제되어야 하겠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당위성부터 인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하며 항상 우리보다 강한 경쟁자들을 직시하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부산대학교가 지리적으로 수도권의 대척점에 위치한 동남권의 지방 국립대학으로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고 전국적인 존재감도 아직 상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도권 대학들보다는 지역거점대학의 선두주자로서 누릴 수 있는 잠재적 프리미엄이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경영대학의 구성원이 수도권 상위대학에 결코 뒤지지 않는 면모를 지속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만

있다면 반전의 기회는 언제든지 도래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라는 운명공동체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미래의 후학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로 기억되려면 현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락함과 평화로움이 실은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고 있는 목욕탕의 물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우리는 불리하게 변화해 온 거시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적절히 적응해 왔다고 강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난 3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위상이 top에서 변방으로 지속적으로 밀려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도 이러한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변변한 노력을 기울인 적은 거의 없었던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영대학과 동고동락하면서 대학의 위상이 낙하하는 유성처럼 하향궤적을 그려온 과정을 목격해 온 저로서는 우리의 소중한 동지가 더 이상 추락하지 말기를, 무엇보다도 어느 순간 삶겨진 개구리 신세로 전락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모든 효원경영가족이 현재의 우리 자화상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을 재정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완전히 삶겨진(hard-boiled) 개구리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역 학부모들이 똑똑한 자녀를 더 이상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대학, 지역의 우수 고교생들이 진학하고 싶은 드림스쿨로 여기지 않는 대학, 재학생들은 패배감과 열등감에 젖어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라도 도망치고 싶어 하는 대학, 교수는 금전적 이익, 세속적 명예와 권력추구에 연연하여 정치적으로 이합집산하거나 패거리문화를 만들어 내면서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대학, 전국적, 국제적으로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연구 성과가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졸업생들은 대학의 부정적 평판 때문에 취업하는데 애로를

현재 경영대학이 안고 있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경영대학은 인적, 물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둘째, 경영대학 내부에는 아직도 폐쇄적이고 자기 보호적이며 사익추구를 지향하는 소집단 이기주의의 관행이 잔존해 있다고 여겨집니다.
셋째, 암암리에 그들을 드리우고 있는 패배주의, 열등감, 적당주의야말로 경영대학이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장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겪는 대학, 교수가 학생 위에 권위로 군림하며 존경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두어야 할 사제관계가 불신과 원망으로 점철된 대학, 그리하여 도태되어야 할 “지잡대”의 리스트에 오르더라도 할 말이 별로 없게 된 대학, 이쯤 되면 완속상태라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션과 비전은 단순명료합니다. 뜨거운 물에 완속되기 전에 적당히 따스하다고 느껴지는 목욕탕 물을 박차고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구성원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며 전환의 방향은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자(Back to Basic)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월성(excellence)의 추구를 존재이유로 삼는 고등교육기관인 거점국립대학에서 기본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성원이 본분에 충실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점진적으로 전국적,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며 이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추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교수와 학생 간에 신뢰와 존경이 자리 잡고 대다수 교수들이 소박하고 성실하게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는 대학, 교수는 양질의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학생들에게 일류의 콘텐츠를 전수하는 대학, 그리하여 세계의 명문대학에서 끊임없이 공동연구나 국제교류의 러브콜을 보내오는 대학,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와 존경을 보내오는 대학,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름만 들어도 존경심을 갖게 되는 만인의 dream school로 여겨지는 대학, 이러한 이상의 실현은 모든 구성원이 제각기의 주관할 톱기기를 멈추고 대학 개조의 대의에 동조하고 성원을 보내 주는 데서부터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경영대학이 보다 강건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3월 12일

Main News 주요뉴스

사회적기업 석사과정 설립·운영 지원 협약식 개최

9월 3일 서울 SK 서린빌딩에서 부산대와
고용노동부, SK동반성장위원회, BS금융그룹 부산은행 4자 간 지원 협약식

부산대는 '사회적기업 석사과정'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9월 3일 서울 SK 서린빌딩에서 부산대와 고용노동부, SK동반성장위원회, BS금융그룹 부산은행 4자 간 지원 협약식을 했다. 2015년 국립대 최초의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하는 '사회적기업 석사과정'은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와 창업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운영하며 이수 후 사회적기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부산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기업 석사과정'의 커리큘럼 개발 및 학과 과정 운영, 교수 연구 및 강의 지원 등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적기업 관련 학술포럼 개최와 국제교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행정지원과 정보공유, 네트워크 등을 지원, SK동반성장위원회와 BS금융그룹 부산은행은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총 7억 원의 자금을 후원해 커리큘럼 개발과 연구인력 확보, 전용강의실 구축, 사회적기업 창업 인재를 위한 장학금, 사회적기업 연구 및 해외연구, 국제학술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사회적기업 석사과정'의 책임을 진 경영학과 조영복 교수는 "2013년부터 2년 연속으로 선정된 '부산대 사회적기업



▲ 사진 협약식(왼쪽부터 BS금융그룹 부산은행 성세환 회장, 부산대 김기섭 총장,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 SK 김재열 부회장)

리더과정'의 운영경험과 지역 내 학생들의 정규학위과정에 대한 관심, 열망으로 '사회적기업 석사과정'을 개설하게 됐다."라며 "부산대가 사회적기업계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연구와 창업의 허브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년 학위과정인 '사회적기업 석사과정'은 경영학과 공학, 의학 및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이 참여해 운영한다.

학부 졸업생들 SSCI 저널 논문 게재

경영학과 졸업생인 조인재(07학번), 김유진(08학번) 씨가 학사과정 재학 중 제1, 제2 저자로 함께 연구한 논문이 온라인판에 게재

경영학과 졸업생인 조인재(07학번), 김유진(08학번) 씨가 학사과정 재학 중 제1, 제2 저자로 함께 연구한 논문이 최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품질경영 분야의 SSCI 국제저널인 『Total Quality Management & Business Excellence』지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들의 연구논문은 글로벌 전자업체 서비스 센터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갖는 난해성, 모호성 및 주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ERVQUAL(서비스품질 측정모형)과 어떤 현상의 불확실한 상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퍼지이론'을 바탕으로 한 접근법을 제안했다.

비교적 연구실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이공계에서는 학부생들이 SSCI(E)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인문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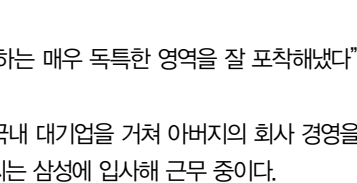
계 학부생들이 대학원 선배나 외부 도움 없이 SSCI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논문을 지도한 객촌 교수는 "두 학생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연구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교차하는 매우 독특한 영역을 잘 포착해냈다"

고 말했다. 졸업 후 조인재 씨는 국내 대기업을 거쳐 아버지의 회사 경영을 돕고 있으며, 김유진 씨는 삼성에 입사해 근무 중이다.



▲ 사진 왼쪽부터 조인재, 김유진 씨



교수동정 Professor News

김정교 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경영학과 김정교 교수는 신찬후(12학번) 박사와 공동 수행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시행이 감사인 보수 주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로 11월 15일 목원대에서 열린 한국회계정보학회 2014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한국회계정보학회 최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이 논문은 회계정보연구지 제32권 제2호에 발표됐다.

이장우교수, 한국금융공학회
2015년도 회장 취임

경영학과 이장우 교수가 한국금융공학회 2015년도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금융공학회(www.kafe.or.kr)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금융공학연구'를 발행하는 재무관련 4대 전국학회 중 하나다. 2001년 설립 이후, 금융공학 및 재무·금융 분야의 연구를 통해 한국의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학술적·실무적 활동을 왕성하게 벌이고 있다.

이장우 교수는 "금융시장에 대한 올바른 시각 속에 금융공학과 재무·금융 학문이 나아갈 길이 있다."라며 "자유로운 연구와 창의적 금융 활동을 통해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회 학술활동에 긴요한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경영대학
이연승 신임교수 채용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은 2015년 3월 1일자로 이연승 교수를 신임교수로 채용했다. 이 교수는 96년 부산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99년 부산대학교에서 국제통상전공으로 국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02년도에 부산대학교에서 무역학과 경제학박사를, 10년도 2월 영국 스코틀랜드 해리엇와트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1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호주 태즈매니아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번 학기부터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국제경영학 원어 수업과 국제경영사례연구 수업을 진행한다. 이연승 교수의 모교 교수 취임을 축하하며, 경영대학 학생들이 새로운 교수님과 함께 더욱더 학업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4년 SSCI급 국제저널 논문게재실적



고광수 교수



최종서 교수



신종국 교수



곽춘중 교수

1. 고광수 교수 (외 Yaping Wang, Miyoun Paek, Yeonjeong Ha)의 "The Flow-Performance Relation of Chinese Equity Mutual Funds: Net Flows, Inflows, and Outflows" 논문이 재무관리분야의 SSCI급 저널인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2014/4)에 게재되었다.
2. 고광수 교수 (외 Miyoun Paek)의 "Aggregate Net Flows, Inflows, and Outflows of Equity Funds: The US versus Japan"이 SSCI급 저널인 Japan and the World Economy (2014/11)에 게재되었다.
3. 고광수 교수 (외 Bong-Soo Lee)의 "Are Japanese Short Sellers Information Detectives?" 논문이 SSCI급 저널인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2014/12)에 게재되었다.
4. 객촌중 교수 (외 Jaehee Kim, Chang Ouk Kim)의 "Analysis to Timeout Mechanism in a Testing-Repair Model" 논문이 생산관리 분야의 SC(E)급 저널인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2014/8)에 게재되었다.
5. 신종국 교수 (외 Min-Sook Park, Yong Ju)의 "The Effect of Online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on Consumer Purchasing Intention of Social Deals" 논문이 SSCI급 저널인 Global Economic Review (2014/1)에 게재되었다.
6. 최종서 교수 (외 Young-Min Kwak, Chongwoo Choe)의 "Earnings Management Surrounding CEO Turnover: Evidence from Korea" 논문이 회계학 분야의 SSCI급 저널인 Abacus-A Journal of Accounting, Finance, and Business Research (2014/3)에 게재되었다.

Scholarship 장학

2015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현황

2014학년도 2학기 성적 기준으로 수업료 60명, 기성회비 189명이 선발

2015학년도 1학기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교내 장학금 중 성적 우수 장학금은 2014학년도 2학기 성적 기준으로 수업료 60명, 기성회비 189명이 선발되었고, 성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선발된 발전기금 장학금(등록금과 무관한 학업 장려금)은 24명이 1인당 500,000원씩 받았다. 가계곤란,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

서 등으로 선발되는 경영대학 자체 장학금 중 경영대학 특성화 사업 특별장학금은 7명이 선발되어 1인당 1,000,000원씩, 인산 장학금은 5명이 1인당 580,000원씩, 니오어학원 지원금은 2명이 1인당 1,000,000원씩 받았다. 그 외에도 발전기금 장학금에 1명이 선발되었으며, 기타 외부장학금이 다수 지원되었다

University Events 대학행사

경영대학 축구·농구대회

우승팀에게는 20만원, 준우승팀에게는 10만원씩 각각 지급



경영대학 학생회에서는 기존 5월에 있었던 체전에서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이루어졌지만, 저학년 위주와 반별로 진행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2학기를 맞이하여 다양한 학번에서 자유롭게 팀을 짤 수 있는 경영대학 축구대회, 농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축구대회에는 총 8팀이 출전하여 결승 9월 29일 세븐일레븐팀이 우승컵을, 농구대회에서는 총 4팀이 출전하여 10월 8일 MAD팀이 우승컵을 거머쥐게 되었다. 상금은 우승팀에게는 20만원, 준우승팀에게는 10만원씩 각각 지급되었고, 이번 축구·농구대회를 통하여 우리 경영대학 학생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체력 증진에도 힘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시험기간 응원간식행사

경영대학 학생 대상으로 진행

이번 학기도 학생회에서 시험기간 응원 간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중간고사 때는 10월 13일 월요일 11시 45분부터, 기말고사 때는 12월 11일 목요일 11시 45분부터 점심시간에 맞추어 경영관 로비에서 선착순 300명까지 햄버거와 콜라를 나누어주었다. 이 행사는 오직 경영대학 학생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부하느라 끼니를 거르기 쉬운 학생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소통의 장

9월 17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경영관 212호

9월 17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경영관 212호에서 소통의 장이 열렸다. 소통의 장은 교수들과 행정실 계장을 비롯한 경영대학의 구성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토론 및 질의할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올해 처음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다소 멀게만 느껴졌던 사제관계가 돈독해지는 계기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낀 점을 파악하여 보다 더 나은 경영대학의 교육환경을 기대하는 바이다.

경영관 학업공간 추가 설치

약 30명의 학우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

4대 경영대학 학생회는 2014년 2학기에 경영관 A동 3층 복도 공간을 활용하여 학업 공간을 마련했다. 약 30명의 학우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경영관 도서관보다 탁 트인 전망과 깨끗한 학업공간 시설로 특히 시험기간에 문전성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문대가 있어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을 읽을 수 있다. 많은 학우의 이용을 바라며 위치가 교수연구동과 붙어 있어 조용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대학행사 University Events

경영대 노트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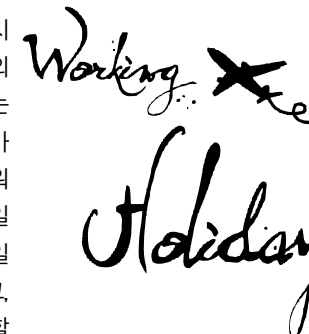
1학기 학생회 활동보고와 2학기 학사일정 안내하여 학생회 홍보와 정보 전달

2학기를 맞이하여 경영대학 학생회에서는 경영대 노트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부하였다. 노트 표지에는 경영대학 로고를, 속지에는 1학기 학생회 활동보고와 2학기 학사일정을 안내하여 학생회 홍보와 정보 전달의 효과를 누렸다. 이를 통하여 우리 경영대학 학생들이 굳이 번거롭게 공책을 사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보다 경영대학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학우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워킹홀리데이 설명회

호주, 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서 일을 하며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마련

9월 24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경영관 212호에서 외교부 워홀프렌즈가 찾아가는 자체 워킹홀리데이 설명회가 열렸다. 이 설명회에서는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호주, 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서 일을 하며 공부도 할 수 있고, 대학생활 동안 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그 외에도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개, 유경험자의 발표, 질의응답, 개별상담 등 워킹홀리데이를 잘 모르거나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젊음의 무대는 세계다! 워킹홀리데이의 모든 것!

한아로 행사

중국, 싱가포르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부산 문화기행 진행

4대 경영대학 학생회는 2014년 11월 15일 토요일 2시에 중국, 싱가포르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부산 문화기행을 진행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한아로 행사는 유학생들과 조를 이루어 함께 남포동을 둘러보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국제시장과 먹자골목, 용두산 공원 등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들을 둘러보고 부산 어묵, 씨앗 호떡 등의 먹거리를 즐겼다. 경영대학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을 위한 행사에 학우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오작교 행사

선후배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행사

9월 16일 화요일 오후 6시, 경영관 107호에서 경영대학 학생회 주관 오작교 행사가 시행되었다. 건우와 직녀를 이어준 다리라는 오작교의 본뜻에서 따와 선후배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학번 관계없이 4인 1팀을 이루어 16일 오리엔테이션 이후 약 한 달 동안 주어지는 미션 등 팀 활동을 장려하여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오작교를 통하여 더욱 많은 경영대학 학우들이 선후배 관계를 돈독하게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월제 경영주막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 양일간 넉넉한 터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양일간 넉넉한 터에서 부산대학교 축제 시월제를 맞이하여 주막이 열렸다. 우리 경영대학 주막에서는 스태프들이 군복을 입는 독특한 컨셉으로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어 많은 학우가 찾았고, 교수들 또한 학창시절로 되돌아가 축제를 즐기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큰 액수의 적자가 나던 주막에서 올해는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축제를 통하여 잠시 학업에서 벗어나 청춘을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경영대 헌혈 행사

27명의 학우 참여, 22명의 학우가 헌혈증을 기부

2014년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영관 앞 대학적십자사 헌혈차량에서 경영대 헌혈행사가 열렸다. 헌혈은 건강한 사람이 자유의사에 따라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으로 경영대에서 27명의 학우가 참여해 주었다. 이들 중 22명의 학우가 헌혈증을 기부해주었고 기증된 헌혈증은 뇌경색을 앓고 있는 한 학우의 친지 분께 전달되었다. 우리는 언제 수혈을 받을 상황에 부닥칠지 모르므로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해 건강할 때 헌혈에 참여하자!



University Events 대학행사

제5대 경영대학 학생회 선출

2014년 11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경영관 A동 로비

경영대학 4대 학생회 임기가 끝나고 2014년 11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경영관 A동 로비에서 제5대 경영대학 학생회 선출이 있었다. 이번 선거에는 열정과 청춘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청춘 선거운동본부의 정 입후보자 김태오(경영 10), 부 입후보자 정기원(경영 10) 학우가 단독 출마하였다. 공정한 투표를 통해 청춘 선거운동본부는 유권자 수 1,204명, 투표자 수 614명으로 투표율 51%에 찬성 505명, 반대 94명, 기권 15명으로 득표율 82.25%를 얻어 당선이 확정되었다. 청춘 선거운동본부의 정 입후보자 김태오(경영 10)와 정기원(경영 10)은 “경영대 학우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고 현실적인 요구들에 귀를 기울이며 경영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는 학생회가 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지도교수상담제 시행

학생 스스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경영대학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전 학과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전임교원이 학부생의 대학생활, 학업, 진로·취업 영역의 상담 및 지도를 통해 학생 스스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도교수 상담제를 시행하였다. 매년

1, 2학기로 나누어 1대 1 개인상담 또는 집단상담으로 진행하며 인재개발시스템(PASS)을 통해 학우들이 학생지원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상담신청서를 등록하고 지도교수와의 상담신청이 가능해졌다.

2015년 경영대학 동계 해외탐방 경진대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진출 국가별 현지화 경영전략 탐방 계획’을 주제로 치열한 프레젠테이션 경쟁으로 선정

지난 1월 26일 오전 10시 경영관 A동 430호에서 2015년 경영대학 동계 해외탐방 경진대회가 열렸다.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1월 8일부터 16일까지 예선 접수 기간 동안 총 6개 팀이 신청하였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진출 국가별 현지화 경영전략 탐방 계획’을 주제로 치열한 프레젠테이션 경쟁이 있었다. 서문식, 옥석재, 강상훈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공정한 심사를 한 결과 1위 (상금 400만원) Be Project/KOLAORation, 2위 (상금 300만원) 카플러시안s/코끼리, 3위 (상금 200만원) 씨씨봉/판순이들 팀이 선정되었다.

Be Project 팀으로 뉴욕을 다녀온 김찬휘(경영 11) 학우는 “20살 때 경영학과에 입학 후 세계금융의 중심인 뉴욕 월가에 홀로 배낭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는 것이 없어 그야말로 뉴욕의 겉만 보고 왔지만, 이번 해외탐방 경진대회를 통해 또다시 뉴욕에 다녀올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전공수업을 듣고 사업을 직접 해보기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운 후의 뉴욕은 정말 달라 보였습니다. 또다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경영대학 감사합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있을 해외 탐방 경진대회에 경영대학 학우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대학행사 University Events

양심우산 대여제도 부활

갑작스러운 비나 눈에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학우들을 위한 제도

4대 경영대 학생회는 2014년 2학기에 1학기 때 잠정 폐지되었던 양심우산 대여제도를 부활시켰다. 양심우산 제도란 갑작스러운 비나 눈에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학우들을 위한 제도로 많은 학우가 이용했지만 안타깝게도 양심우산 이용 후 반납률이 저조한 까닭에 잠정 폐지되었다. 그러나 예전보다 강화된 체계적인 컴퓨터 대여 시스템을 구축, 양심우산에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라는

도난방지 문구를 새겨서 높은 반납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심우산 대여순서는 학생회실에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맡기고 연락처를 기록하여야 하며 대여한 우산을 반납 후 맡긴증을 찾아가면 된다. 유의사항으로는 대여 3일 후까지 반납해야 하며 학생회실에 아무도 없을 시 우산대여가 불가하다는 점이다.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양심우산을 ‘양심’ 적으로 사용하고 반납하자!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총 170명이 학사 학위를 받다

2월 27일 금요일, 부산대학교 경암체육관에서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상과대학 경영학부 회계학 전공 48명, 금융공학 전공 8명, 경영학 전공 101명, 그리고 경영대학 경영학 전공 13명, 총 170명이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처음으로 경영대학 졸업생(11학번)이 학사 학위를 수료하여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정든 부산대학교에서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에 한 걸음 내딛는 졸업생들이 앞으로도 우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을 빛내는 멋진 사회인이 되길 바란다.



학생수상 Student Awards

가치투자동아리 SMP

투자경진대회 최우수상, 학교리그 종합 2위 수상

일목요연한 투자전략과 시황분석 및 개별종목 선정과정에 대한 탁월한 프레젠테이션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다.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우수 학습동아리로 선정돼 활동 중인 가치투자동아리 SMP 학생들이 투자경진대회에서 잇달아 입상하며 부산대학교의 위상을 높였다. SMP는 금융투자협회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주최한 자산관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아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부증권(부산·울산·경남 증권투자동아리 대학생 연합) 소속 10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SMP 김동우·오윤표(경영10), 성주현·이재광(경영11) 씨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기봉선(무역09), 정준용(무역10), 김관욱·이재희(경영11) 씨가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대학생 주식 모의투자 대회에서도 SMP 학생들이 학교리그 종합 2위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SMP의 안현준(경영07), 김종영(수학08), 김호창(금융09), 박재홍(경제09), 김동우(경영10), 노현수(무역10), 김건태(화공생명11), 성주현·이진협(경영11) 등 9명은 이번 대회에서 일목요연한 투자전략과 시황분석 및 개별종목 선정과정에 대한 탁월한 프레젠테이션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Student Awards 학생수상

한국장학재단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전
UCC부문 장려상 수상

부산대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명의 수상자 배출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한 다문화 및 탈북학생 멘토링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경영학과 김미연(13학번) 학우가 '나눔지기가 보내는 편지'로 UCC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12월 8일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했으며, 수상자는 "멘토링을 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마음이 따뜻해졌으며 앞으로 멘티와 더 즐거운 추억을 쌓을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 밖

에도 수기부문에서 영어영문학과 오아령(12학번, 사진 오른쪽) 씨가 '순간의 진심이 모여'라는 제목으로 교육부장관상인 최우수상을, 국어교육과 조현자(12학번) 씨가 장려상(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을 받았습니다.)을 받는 등 부산대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왕의(박사과정13학번)씨
사회적기업 컨설팅 성과공유대회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성과공유대회'에서 대회 최초로 2년 연속 수상

경영학과 김왕의(박사과정 13학번)씨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성과공유대회'에서 대회 최초로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왕의씨는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과 지역적 연계·협력 방안 마련'에 관한 내용으로 올해 감사장을 받았으며, 2013년에는 '수익성 향상을 위한 마케팅/영업전략 구축 및 자원개발을 통한 판로개척'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의 공로로 부산시장 표창을 받는 등 국내 사회적기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230여 건의 사례 중 최종 5건이 선정돼 12월 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스텝(STEP)팀 2014 에픽스(EPICS) 포럼
프레젠테이션대회 2위 입상'스포츠, 예술과 문화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한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지난 8월 2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와 UN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

(UNOSDP)이 공동주최한 2014 에픽스 포럼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 부산대학교 '스텝' 팀이 2위를 차지했다. 서다은(경영11), 서영진(나노메카트로닉스공학12), 나효정(예술문화영상14)씨 등 다양한 전공자들로 구성된 스텝(STEP, Sport and Tradition Exchange Program)팀은 '스포츠, 예술과 문화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한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이들은 제3세계 국가들과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면서 스포츠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까지 증진하자는 제안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스포츠와 문화예술을 통한 건전한 미래를 구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많은 학생의 참여와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학생수상 Student Awards

제2회 MBA주관 영어 학술발표대회 금상 수상

라인(NINE)이라는 모바일 메신저의 급속한 성장과 연계하여 성공전략을 분석



지난 9월 30일 국제관에서 열린 제2회 MBA 주관 학술발표대회에서 이예지, 박현웅, 오승향, 김유빈 4명의 경영학도로 구성된 학부팀이 금상을 받았다. 이 팀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재해가 발생하여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족, 친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인식되면서 라인(NINE)이라는 모바일 메신저의 급속한 성장과 연계하여 성공전략을 분석하였다.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라인(NINE)의 훌륭한 전략과 주제의 신선함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를 기점으로 MBA 학우들뿐만 아니라 경영대학 학우들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

국제관련 International

교토대학 경영관리대학원 교환학생 파견

2014년 3월 31일, 일본 교토대학 경영대학원과 MOU 체결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은 2014년 3월 31일, 일본 교토대학 경영대학원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맺었다. 본 체결을 통하여 경영대학원 대학원생과 교원의 학술적 교환을 목적으로 매 학기 경영대학원 대학원생 2명을 파견 및 초청한다. 이번 2014년 2학기에는 박금주(13학번), 황지영(13학번) 대학원생을 파견하였는데, 두 학생 모두 한 학기 연장을 신

청하였고, 배현정(13학번), 정혜진(13학번) 대학원생이 다가오는 2015년 1학기에 파견이 될 예정이다. 파견학생들은 교토대학 경영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모두 수강할 수 있으며, 본 체결을 통하여 우리 대학과 교토대학 경영대학원 간의 협동 연구, 학회, 학술프로그램의 운영 및 공동출판 도모에 큰 기대를 불러오는 바이다.

경영대학 교환학생 간담회 10월 28일 화요일, 상남국제회관 문창홀



10월 28일 화요일 점심, 상남국제회관 문창홀에서 경영대학 교환학생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식사하면서 자유롭게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나 담소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서 경영대학장과 옥석재 경영학과장, 서문식 부학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고 프랑스, 중국, 홍콩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과 그들의 버디 학생이 참석했다. 홍콩에서 유학을 온 Pan Haicheng씨는 "경영대학 차원에서 학교관계자와 유학생들, 그리고 유학생들끼리 만남의 자리를 열어주어 감사하다."라며 간담회 소감을 전했다. 최종서 학장은 간담회에서 "외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을 찾아주어 고맙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소중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라며 격려했다.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원우회 집행부 Final 워크숍 2014년 12월 5일 상남국제회관



12월 5일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에서 원우회 집행부 Final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는 최종서 경영대학 원장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하여, 2014년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행사에 대한 리뷰(review) 및 예산 사용과 감사위원회 집행 내용을 보고하고, 전인수 원우회장과 원우회 집행부에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앞으로도 원우회 집행부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통해 서로 단합하고 배려하는 원우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원우회 집행부 2차 워크숍 2014년 8월 8일 광안리



2014년 8월 8일 광안리에서 MBA 원우회 2차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강상훈 경영대학원 부원장과 집행부 20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에서는 2014년 상반기 활동들을 되돌아보고, 하반기 주요 행사의 일정 확인과 예산계획 점검 및 수정 승인 등이 있었다. 원우회 집행부 2차 워크숍은 2014년 하반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안동 하회마을 힐링캠프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 원우회 가족 참여 확대

지난 11월 15일 최중서 경영대학원장 및 강상훈 부원장과 MBA 45, 46기 원우 86명이 경북 안동 하회마을로 힐링캠프를 떠났다. 한 해를 돌아보고 학업과 직장 업무를 병행해 오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원우회 가족들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경영대학원 원우 간의 친목 도모와 우정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열심히 일한 당신 가끔은 즐기는 것도 좋다."



사랑의 밥퍼 나눔 봉사활동

MBA 원우 총 30여 명 봉사활동 참여

11월 29일 부산 시청 광장에서 MBA 원우 총 30여 명이 어르신들에게 배식 및 식사 배송과 마무리 설거지 등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사랑의 밥퍼 나눔 공동체에 1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은 연중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열리며 사회봉사 및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이다.



경영인의 밤

2014년 10월 23일 부산 롯데호텔

2014년 10월 23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최중서 경영대학원장 및 경영대학원 교수 10명과 최용석 경영대학원 총 동창회장 및 임원 8명, MBA 44기~46기 등 총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인의 밤 행사가 열렸다. 경영인의 밤 행사는 한 해 동안 다진 MBA 원우 간의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경영대학원 행사의 백미이자 최대 규모의 행사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총 3부로 나뉘어 3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다.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및 이웃돕기 성금 전달

경영대학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발전기금 전달

MBA 원우회는 경영대학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발전기금 1,000만원을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최중서 경영대학원장)에 전달하고 추운 연말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스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KNN 사랑의 열매 운동본부와 부산대학교 단비촌 나

눔 동아리에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주위를 둘러볼 줄 아는 당신이 멋있습니다.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주관 영어학술발표대회

MBA 46기 전원 참석

지난 9월 30일 국제관에서 MBA 영어 Presentation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MBA 46기 전원 참석 등 약 130명이 참석했고 최중서 경영대학원장 및 보직 교수 3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총 6개 팀이 결승에 올랐다. (경영대학 학부 2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4팀) 4월부터 9월까지 1, 2차 예선을 시행하고 최종 6팀을 대상으로 영어 Presentation 학술대회를 실시했다. 2013년에 이어 두 번째 학술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경영대 학부



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학술대회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총 76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학부 1팀과 MBA 1팀이 공동 금상을 받았고 은상 2팀, 장려 2팀이 경영대학원장 상장을 수상했다.

MBA 석사과정(44기) 학위수여식

지난 8월 22일 금요일 16시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경영학 석사과정(44기) 학위수여식이 있었다. 학위수여자들의 가족 80여명, 부산대학교 부총장, 최중서 경영대학원장, 강상훈 부원장과 최용석 MBA 총 동문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100명의 원우들이 수료하고 이 중 98명의 원우들이 석사학위를 받았다.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이들의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란다.



MBA 뉴스지 발간

일 년간의 MBA 역사를 회고



MBA 뉴스지는 일 년간의 MBA 역사를 회고하고 각 원우들의 소회를 담은 매년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로 11월 30일 발간되었다. 총 500부를 발간하여 원우회 및 교수진, 행정 부서 등에 배포하였다. 학부생들이 효원경영과 더불어 MBA 뉴스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

MBA 뉴스지는 일 년간의 MBA 역사를 회고하고 각 원우들의 소회를 담은 매년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로 11월 30일 발간되었다. 총 500부를 발간하여 원우회 및 교수진, 행정 부서 등에 배포하였다. 학부생들이 효원경영과 더불어 MBA 뉴스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

2015년도 원우회 회장단 선거



2014년 11월 19일 MBA 원우회 44~46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원우회를 이끌어 갈 회장단 선거(원우회장, 수석 부회장 2명 선출)가 시행되었다. 46기 김홍석 원우가 원우회장에, 김보연 원우가 수석 부회장에 당선되어 최중서 경영대학원장이 당선증을 수여했다. 최종 투표율은 89%, 찬성 95% 이상의 득표로 원회회장 선거가 원만히 이루어졌다. 한 해를 이끌어갈 회장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낸다.

AMP Advanced Management Program

이근철 경영대학원 AMP 36기생, 제11회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선정

성공한 기업가로서 기업이익을 환원하고 꾸준히 봉사

부산대학교는 매년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문을 '자랑스러운 부산대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10월 7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교 68주년을 맞이하여 '제11회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이 날, 이근철 (경영대학원 AMP(최고경영자과정) 36기, 사진) (주)삼정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각계 동문 11명이 올해의 자랑스러운 부산대인에 선정되었다. 이근철 대표이사 사

장은 1983년 (주)삼정 설립 이래 지속적인 주택건설 사업을 펼침으로써 국민 주거 안정, 일자리 창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등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성공한 기업가로서 기업이익을 환원하고 꾸준히 봉사하고 있다.



Advanced Management Program AMP

제64회 AMP 수료식

2015년 2월 12일 오전11시 상남국제회관

2015년 2월 12일 오전 11시,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에서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AMP) 제64기 수료식이 부산대학교 부총장과 AMP 총동문회 임원진의 참석 하에 진행되었다. 총 76명이 1년 과정의 수료를 마쳤으며, AMP 64기 문병기 회장이 대표로 총장패 수여를 받았다.



AMP 종강식

2014년 12월 11일, 부산 농심호텔



12월 11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AMP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 64기는 기존 기수들과 달리 처음으로 1년 과정을 도입하여 원우들이 보다 더 긴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더욱 종강식에 대해 아쉬움을 자아냈다.

템플스테이

2014년 9월 26, 27일 밀양 표충사



9월 26일과 27일, AMP 64기에서 양일간 밀양 표충사로 템플스테이를 다녀왔다. 템플스테이는 산사에서 예불과 다도, 참선, 명상 등 한국의 전통 불교와 정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불교 문화 프로그램으로서 이번 체험을 통하여 잠시 일상에 여유를 가지고 자연을 느끼며 마음을 가다듬는 기회가 된 시간이었다.

제64기 논문발표

지난 1년간 최고경영자과정을 수강한 노력의 결과

12월 4일,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제64기 논문 발표가 최고경영자과정 강의실에서 시행되었다. 논문 발표는 지난 1년간 최고경영자과정을 수강한 노력의 결과로써, 제64기 수강생 모두가 한 명씩 돌아가며 발표를 마쳤고, 최종서 경영대학원장과 강상훈 경영대학부원장 심사 하에 진행되었다.

64기 AMP 졸업여행

AMP 64기는 11월 20~24일, 세부



AMP 64기는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필리핀과 서양의 문화가 혼합되어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와 아자수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세부지역을 함께 여행하며 다양한 체험과 유적지를 관광하였다. 지난 일 년간의 AMP 과정을 되돌아보며 64기 원우 모두가 회포를 풀고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었다.

교수 간담회

9월 15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9월 15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AMP(최고경영자과정) 64기와 경영대학 교수님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경영대학 교수 20명이 참석하였으며, 서병수 부산시장의 특강 후 만찬을 함께하며 사제간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15 정기총회 및 신년회 1월 27일 서면 롯데호텔

2015년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가 1월 27일 서면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대학교 김기섭 총장, 정흥태 총동문회 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약 30명의 동문과 교수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경영대학 지원뿐만 아니라 졸업생들 간의 상호교류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그동안의 재학생 후원활동을 평가하고 성과중심의 사업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제3회 자랑스러운 부산상대인상 시상식 및 74학번 입학 40주년 기념 해

2014년 11월 8일 토요일 국제관 101호

지난 11월 8일 토요일 국제관 101호 대강의실에서 제3회 자랑스러운 부산상대인상 시상식 및 74학번 입학 4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섭 부산대학교총장, 최종서 상과대학장(경영대학장 겸임), 이갑수 경제통상대학장, 민병채 원로교수, 박찬목 원로교수, 재직 교수들, 이상직 고문, 노기태 자문위원을 비롯한 여러 동문과 입학 40주년을 맞이한 74학번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제3회 자랑스러운 부산상대인상은 허하 명예교수(62학번), 김보두 명예회장(70학번), 박성훈 (주)삼성종합화학 부사장(74학번), 김석환 KNN 사장(77학번)이 수상하였으며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증하였다. 이어서 입학 40주년을 맞이한 74학번은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



과 총 130여 명의 입학생 중 4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추억 여행의 시간을 가졌고 발전기금 1,500만 원을 기증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74학번 동문의 우정이 영원히 이어지길 바라며 이 후에도 이 행사가 40주년을 맞이하는 학번들에 훌륭한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염원한다.

제2회 부산상대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11월 13일 목요일 통도 파인리스트 컨트리클럽에서 제2회 부산상대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6월의 행사가 연기되었고 수능 및 한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년의 18개 조 보다는 훨씬 작은 수의 참여였지만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경영대와 경제통상대 학생회가 참여하여 접수 및 행사진행을 도와주어 더욱더 화기애애한 시간이었다. 또한, 이갑수 경제통상대학장, 김보두 명예회장, 전석현 동문회장, 양일상 수석부회장의 시타로 시작된 이 날 라운딩은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 띤 경기를 펼쳤으며 대회가 끝난 후 부산대 지하철역 부근 락앤락에서 만찬을 가졌다.

부산대 시월제 참석



지난 10월 1일 상대동문회 집행부는 경영대에서 시월제 기간에 운영하는 주막에 참석하여 후배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전석현 회장, 양일상 차기회장, 최승조 사무총장, 감희상 장학국장, 김창재 사이버국장, 변종문 사무국장이 함께 참석하여 경영대 학생회 후배들에게 상대동문회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자부심을 심어 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또한, 선후배간에 함께 막걸리도 마시면서 후배들에 대한 애정을 전하였다.



별을 담다

- 설립 : 2014년 3월
- 구성 : 부산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학우들
- 지도교수 : 신종국 교수님



★ Who?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내에 무수히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동아리 '별을 담다' 회장 경영학부 10학번 박시훈입니다. 동아리가 창설된 후 처음으로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뉴스레터 '효원 경영'에 '별을 담다'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별을 담다'라는 이름에는, 저희 활동이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닌 이 활동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여 송고한 가치를 지닌 '별'을 담는 동아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을 '별을 담다'의 세계에 초대하겠습니다.

★ Why?

금정산의 힘찬 기운을 받고 있는 우리 부산대학교 캠퍼스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함께하는 우리 캠퍼스가 매일매일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후, 조금씩이라도 청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청소활동을 시작하였고, 청소를 하면서 많은 분에게 받았던 칭찬과 뿌듯함을 다른 학우 분들과도 소통하고 또 공유하기 위해서 함께 활동을 할 분들을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0명이 넘는 학우들과 부산대학교 캠퍼스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줍기 위해 캠퍼스 정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How?

'별을 담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캠퍼스를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할 때에는 양손에는 빨간색 목장갑을 끼고, 검은색 비닐봉지 두 개를 손에 쥐고서 흰색 쓰레기 집게로 캠퍼스 곳곳에 버려진 '별'들을 하나씩 주워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활동 후에는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각기 다른 학우들과의 교류하는 장(場)을 펼치고 있습니다.

★ What?

캠퍼스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시작한 저희 '별을 담다'는 이제는 쓰레기를 줍는 행위 이상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캠퍼스를 더욱 아름답고, 쾌적하고, 또 살기 쾌적한 장소로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앙도서관 심터 옆 화단에 꽃심기 프로젝트
- 중앙도서관 심터 담배꽂초 전용 쓰레기통 만들기 프로젝트
- 부산대학교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제1호 공원 만들기 프로젝트
- 필요 이상으로 이용되는 엘리베이터 사용에 경각심 일깨우기 프로젝트
- 테이크 아웃 커피잔 (플라스틱) 전용 쓰레기통 만들기 프로젝트

'별을 담다'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부산대학교 캠퍼스를, 또 부산대학교 학우 여러분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So?

저희는 자발적인 여러 활동으로 조금씩 서서히 부산대학교 캠퍼스를 변화시켜서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욱 애교심을 갖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별을 담다'와 함께라면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협동심을 기르고,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회의 기획 및 외부 단체들과 대외 협력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활동에 관심을 갖고 '나'를 위해,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저희와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꽃심기 프로젝트



▲ 담배꽂초 전용 쓰레기통 만들기 프로젝트



▲ 엘리베이터 사용에 경각심 일깨우기 프로젝트



▲ 테이크 아웃 커피잔 (플라스틱) 전용 쓰레기통 만들기 프로젝트



Who is Responsible for C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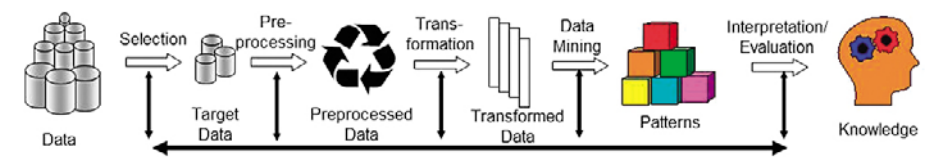
교수 홍 태 호



미국 최대 쇼핑몰 중의 하나인 타겟(Target)의 고객센터에 화가 잔뜩 난 중년 고객이 자신의 미성년자 딸에게 임신부 용품의 할인쿠폰을 발송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러나 결국은 이 고객의 딸은 임신한 것이 맞았고 타겟은 이후로는 임신한 고객들이 자신들이 감시받는다느 느낌을 받지 않도록 일상 생활용품과 섞어서 육아용품 쿠폰을 발송하였고 매출은 대폭 신장하였다.

과연 타겟은 어떻게 고객이 임신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을까? 정답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Business Analytics)’에 있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빅 데이터란 바다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로 이미 20년 전인 1996년에 Usama Fayyad가 제시한 ‘지식발굴과정(Knowledge Discovery Process in Database)’의 핵심인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으로 세상에 알려져 왔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지식을 발굴하는 것은 광산에서 금을 발견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어느 컴퓨터학자가 데이터마이닝이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지식을 데이터만을 갖고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데이터마이닝의 핵심은 대용량의 데이터와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똑똑한 도구인데, 최근의 빅 데이터 열풍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계산을 할 수 있는 도구, 즉 컴퓨터의 처리능력 발달은 똑똑한 도구의 발달로 이어진다.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s)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기법과 Support Vector Machines로 대표되는 통계기법들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과거에는 불가능하였던 일들이 지금은 쉽게 처리되고 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과거에 대한 분석보다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미래의 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항상 내려야 하는 기업경영에서 활용이 두드러진다. 그중에서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에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통한 성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1]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지식발굴과정의 프로세스

고객관계관리(CRM)는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운영적 CRM, 분석적 CRM, 협업적 CRM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분석적 CRM에서 축적된 고객 관련 자료에 기반을 두어 다양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응용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위의 타겟 사례처럼 고객의 소비행태를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마케팅 프로모션을 수행하는 것을 장바구니분석(Market Basket Analysis)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식빵을 사는 고객은 우유를 살 확률도 높아서 식빵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우유의 할인쿠폰을 보내는 방식이다. 기술적으로는 연관분석(Association Rule)이라고 하는데, 모든 거래데이터의 데이터웨어하우스를 통해서 분석해야 하므로 지금과 같이 컴퓨터의 처리능력이 발전하면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미국 제1의 쇼핑몰인 월마트의 장바구니분석 사례에서처럼 기저귀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맥주를 구매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저귀와 맥주의 진열을 재배치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알려진 일화이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이탈고객관리(Churn Management)도 CRM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은행, 보험, 이동통신 등과 같이 대다수 사람이 이미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포화된 사업에서는 신규고객의 모집보다는 기존고객이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객 데이터의 예측 모델링을 이용하여 미국의 무선 통신사업자는 회사 매출이 한 해 10% 증가하였고, 고객 이탈률 또한 모든 무선 사업자 중에서 최저인 0.94%를 달성하였다.

또 다른 예로 암스테르담 관광 컨벤션 위원회(Amsterdam Tourism & Convention Board)는 방문객 패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아침에 관광객이 몰리는 박물관, 혼자 다니는 젊은 배낭여행객 또는 가족단위의 여행객 등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하여 시의 카드

매출이 26% 증가하고 호텔 예약이 14%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화기의 로밍데이터를 분석하여 방문객의 이동 경로

를 추적함으로써 더 정교한 관광 데이터마이닝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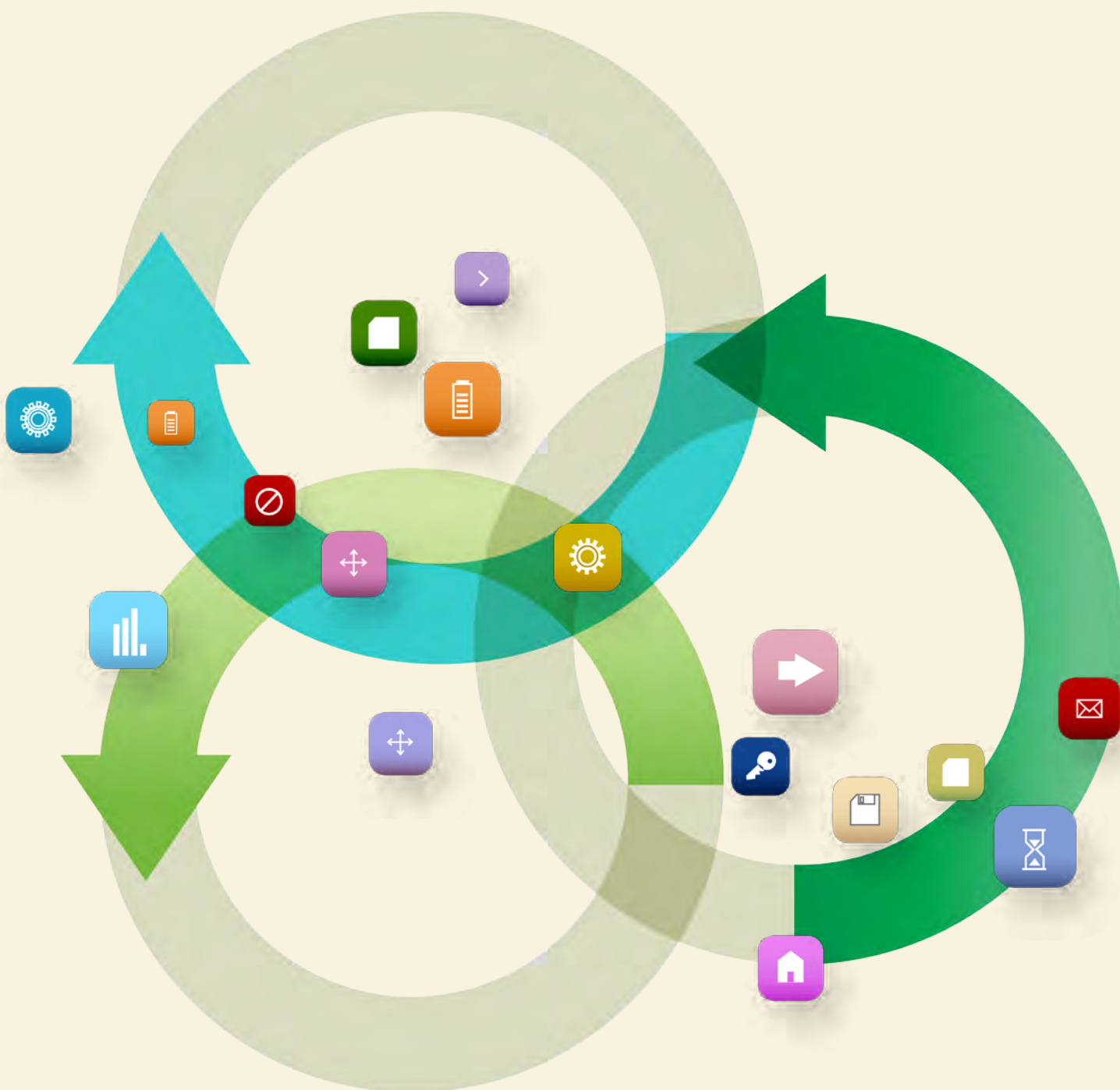
위의 사례처럼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CRM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데이터베이스, 정보기술, 마케팅 등을 모두 이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즉,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 수정한 후 결과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진정한 고객관계관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기업들이 이러한 CRM 프로젝트를 데이터웨어하우징 & 마케팅 부서 등으로 두 기능을 각각 다른 인력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단계에서, 단일 부서에서 CRM 전략과 프로세스를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통해 직접 제시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과연 누가 CRM을 추진하면 좋을까? 20년 전의 최종사용자 컴퓨팅(End User Computing)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결국, 도메인을 이해하는 사용자가 정보시스템 또는 기술에 접근하여 활용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CRM의 발달로 고객데이터의 가치가 커지는 만큼 고객의 프라이버시 및 CRM 시스템의 보안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사용자가 직접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윤리의식 및 보안의식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도 있고, 기업을 커다란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고객관계관리를 위해서는 마케팅지식과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다룰 수 있는 능력에 추가하여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유능한 CRM 인력의 양성은 문제에 대한 이해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의 활용능력 그리고 정보윤리가 핵심이라는 점이다. 만약 누군가가 기업에서 CRM 담당자로서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 능력을 균형 있게 키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My Turning Point at PNU



교수 이 언 승



8년 전 나는 유학을 떠났다. 부산에서 태어나 학부, 석사, 박사까지 부산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서울 유학도 안 해본 부산토박이에겐 무척이나 설레며 한편으로는 두렵기까지 한 발걸음이었다. 유학을 결심한 이유는 부산대학교에서 첫 번째 박사를 마친 후 외국에서 두 번째 박사학위에 도전하기 위해서였다.

영국 스코틀랜드 수도인 에든버러에서의 유학생 생활은 내게 있어 회색빛으로 기억된다. 특히 오전 9시를 넘어서야 해가 뜨고 오후 3시 반쯤 어둑어둑해지는, 그리고 비바람이 뽕뽕 몰아쳐 도무지 우산조차 쓸 수가 없는 호러블한(?) 스코틀랜드의 겨울 날씨의 가혹이나 외롭고 힘든 마음을 더욱 시리게 했다. 터널 끝 보일 듯 말 듯한 빛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계획한 분량의 연구를 진행해가며 두 번째 박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영국에서 박사를 마무리한다는 기쁨도 잠시, 또다시 내 앞에는 취업이라는 커다란 산이 놓여 있었다.

그 당시 나는 한국으로 바로 귀국하기보다는 선진국의 대학에서 교수로서 일하며 국제적 교육 및 연구 경험을 몇 년간 쌓고 싶어, 해외 취업에 도전하게 되었다. CV,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인터뷰까지 한국과는 여러모로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느라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운 좋게도 학위를 마치던 2010년 호주 국립태즈마니아 대학교에 교수로 채용되어 4년여 기간동안 교직생활을 하게 되었다.

태즈마니아 대학에서는 나는 호주, 한국,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 나이지리아, 피지,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가르쳤다. 학생들 저마다 개성과 특징이 달랐지만, 대체로 호주 및 유럽 학생들은 수업 중 질문 및 토론 참여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반면, 아시아계 학생들은 부끄럼이 많아 수업시간에 무척 조용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태즈마니아는 지구 상에서 손꼽히는 청정지역이라 도시가 무척 깨끗하고, 조용하면서 평화로워 연구하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었다. 동료 교수들도 모두 순박하고 따뜻해서 외국인인 내가 적응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나름 만족했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모교인 부산대학교가 항상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도 기회가 된다면 모교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하고 싶다는 소망이 늘 가슴 속에 있었고, 마침내 올 3월 이렇게 부산대학교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

3월이다. 금정산 봄기운은 여전히 차고 매섭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교는 학생들로 매우 활기차다. 밝고 싱그러운 그 모습들 이면에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것이다.

돌아보면 나의 학부 4년은 겉모습만 성인이었지 내면은 아직 철없고 이제 옳은 길인가 하는 생각들로 갈팡질팡하는 매우 불안정했던 시기였다. 이때 진심 어린 위로와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학생들의 시행착오를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런 스승이 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나부터 학생들의 본이 되고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산대학교에서의 업무 환경은 이미 익숙한 공간이라 크게 부담감은 없고 편안하다. 특히 은사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가슴 벅차다. 여러모로 부족하기에 은사님과 선배 교수님들로부터 배워나가야 할 것들도 많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시라, 내 전공분야와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해나간다면 향후 혁신적인 연구모델과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년여 만에 모교로 돌아와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외욕 충만하고 기쁘다. 이런 기쁘고 설레는 마음을 퇴직하는 그날까지 기억하며 초심을 잊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또 기도한다.

제2의 인생, 학자의 모습으로



전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공 경 태 (경영 85)

2008년 10월 19일 아침,

저는 세계적 회계법인인 Deloitte의 신임 파트너 취임 축하 세미나 참석차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행 대한항공 Business Class에 탑승하여 ‘핫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 (윌리엄 세들러·크레프트 지음, 김경숙 옮김)’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생을 First Age(청년기 1차 성장, 10대~20대 중반), Second Age(사회적 정착, 20대 후반~30대), Third Age=Hot Age(중년기 2차 성장, 40대~60대), Fourth Age(성공적 노화, 70대 이후) 등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애 주기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단계이자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위치한 미지의 광활한 시간인 Third Age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tip 중에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생생한 것은 ‘제2의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부와 지위와 같은 경쟁적인 성공의 개념을 벗어 던지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길을 만들어 가는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에 맞춰 나아간> 사람들이다’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저의 제2의 인생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2014년 3월 3일 오후,

저는 교수로서 첫 강의시간에 늦지 않기 위하여 분주히 점심을 먹고 강의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강의실까지 채 5분도 안 걸리는 짧은 거리였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던 같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상 임용이 되어 꿈에 그리던 교수가 되었지만, 강의 경력은 너무나 부족하여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강의실 문을 여는 순간 나의 표정은 사색이 되어 있었지만, 학생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나를 반겨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학자로서의 생활은 시작되었고 벌써 1년이 지나, 오는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주중에는 전주, 주말에는 부산을 매주 왕복하며 바쁘게 보내면서 많은 일이 주마등 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생각해도 기분 좋은 일은 학생들과 같이 학교 식당에서 점심 먹던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저도 스승으로서 조금은 자질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1991년 9월 19일 새벽,

조선일보를 펼쳐보는 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한글과 한자를 병행표기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명단은 모두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 이름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제법 소요되었습니다. 발표 명단의 하단 부분에 내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환성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저의 회계사로서의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진 아더앤더슨의 국내 제휴 회계법인인 안진회계법인에 입사하여 2014년 2월28일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약 23년 동안 회계감사, 세무업무, M&A, 기업컨설팅 등 많은 업무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합격할 시절에는 변호사, 의사, 행정고시사무관에 묻혀 회계사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때는 1998년 IMF시기였습니다. 정부에서 종합금융회사부터 시작된 금융기관구조조정, 기업 Workout에 회계사들이 대거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때 한솔증권, 평화은행, 경남은행, 무학 등 구조조정업무에 참여하여 전국을 누비면서 활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 성과급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회계사가 유명해져서 잠시 좋았지만, 그 시기가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고급 회계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 회계사의 매년 합격자 수를 1,000명 수준으로 늘리게 되면서 요즘은 회계사 시장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 저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실감사로 인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사들은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시기도 조만간 안정화되어 회계시장의 따뜻한 봄날이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2013년 8월 23일 오전,

부산대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경영학박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한여름에 박사모와 박사 복을 입었으니 무척 더웠습니다. 총장님으로부터 학위를 받으면서 1985년 3월에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를 입학해서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박사과정에 입학할 때 저는 학자의 길을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실무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학자로서의 길을 가야겠다는 결심을 한 이유는 박사과정 동안 논문을 작성하면서 나름대로 고생을 한 것도 있지만, 경영대학 교수님들의 오로지 평생을 제자들에게 대한 교육과 연구에 이바지하시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영대학 학생들은 이러한 훌륭한 교수님들로부터 배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글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주대학교

전체 교수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요구하는

그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그대로

크지도 않습니다.

단지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대로 흉내 내어 성장합니다.

따라서 교수는 제자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수의

사명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제2의 인생 학자의 길을

늦게나마 어렵게 시작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저의 거울로 삼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K-IFRS 도입 이후 영업권 손상인식의 재량의사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연구소 연수연구원
경영학 박사 백 정 한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원칙중심회계기준(principle based standards)인 K-IFRS는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회계처리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기업 상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선택에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공정가치평가를 확대하여 정보이용자에게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전달하고 주식공시증가를 통해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경영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으며,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평가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거나 기회주의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오히려 감소시켜 본래의 취지와 달리 재무제표의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본 연구는 K-IFRS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영업권 회계에 주목하여 상각을 폐지하고 공정가치평가를 이용한 손상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한 회계변경이 재무보고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설계

K-IFRS 하에서는 영업권 손상검사는 손상징후의 검토를 시작으로 손상징후가 관찰되는 경우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 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하락한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회수가능액은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fair value less cost to sell)와 사용가치(value in use) 중 큰 금액을 의미한다.

영업권은 활성시장의 부재로 인해 회수가능액이 사용가치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한 현금흐름 할인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DCF)이 추정된다. 이때, 미래현금흐름은 경영자의 미래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행계획을 통해 유입될 순현금흐름을 반영한다.

제정기관들은 이를 근거로 추정된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은 기업의 미래에 대한 경영자의 사적 정보를 시장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CF에 투입된 미래기대 현금흐름 예측치는 그 정당성이나 합리성의 입증에 매우 어렵고, 과대 혹은 과소 추정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차이가 경영자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시경제적 요인에 기인할 수 있어 경영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특히, 영업권은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 등과 같은 여타의 자산분류에 비해 공정가치추정에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 기회주의적인 회계선택을 내릴 가능성은 더욱 증가한다.

영업권 손상인식에 대한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와 손상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Figure 1>과 같은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Figure 1>에서 Group 1과 Group 4는 손상징후와 손상

인식 여부가 일치하고 있으며 경영자가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그대로 반영한 정상이사결정을 수행한 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 Group 2(가속이사결정)와 Group 3(지연이사결정)은 손상징후와 손상인식 여부가 일치하지 않아 영업권 손상에 대한 의사결정에 경영자의 주관적 의사 반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량의사결정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 Combined Context of Goodwill Impairment Decision Depending on Indication of Goodwill Impairment and Goodwill Impairment Loss

		Indication of Impairment	
		Yes	No
Impairment loss	Yes	Group 1 Normal	Group 2 Accelerated Impairment
	No	Group 3 Delayed Impairment	Group 4 Normal

3 분석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재무상태표를 통해 영업권을 인식한 총 592개 표본을 이용하였으며 아래의 <Table 1>은 표본의 구성현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Table 1> Classification by Joint Types of Indication of Impairment and Impairment loss

	2011	2012	2013	Total
Group 1	18	17	12	47
Group 2	26	42	47	115
Group 3	44	43	32	119
Group 4	99	98	114	311
Total	187	200	205	592

첫째, 영업권 손상에 대한 가속이사결정기업의 주당순자산과 주당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은 정상이사결정기업의 회계정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미래영업현금흐름 예측모형을 이용한 경우에도 정상이사결정기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가속이사결정기업이 전반적으로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경영자의 사적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이익을 조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영업권 손상에 대한 지연이사결정기업 역시 주당순자산과 주당순이익의 주가에 대한 관련성이 정상이사결정기업에 비해 모두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차기의 영업현금흐름 역시 정상이사결정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업권 손상에 대한 재량의사결정이 회계기준 제정기관들의 기대와 같이 경영자의 사적 정보를 자본시장에 전달하는 것이라면 정상이사결정에 비해 기업의 미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함축하고 있을 것이며 회계정보와 주식가격과의 관련성은 높아질 것이다.

반면 경영자가 영업권 손상인식을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상이사결정기업의 회계정보에 비해 가치관련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영업권 손상인식에 대한 경영자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라 회계정보의 주가관련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는 Ohlson(1995)의 가치평가모형과 Barth et al.(2001)의 미래현금흐름예측모형을 확장하여 재량의사결정의 정보효과를 검증한다.

따라서 영업권 손상인식을 지연하는 의사결정은 경영자가 K-IFRS 도입 이후 부여된 재량권을 기회주의적으로 남용하여 순자산과 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정보를 왜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경영자의 임기가 짧고 Big-bath를 취할 동기를 보유한 경영자들은 영업권 손상을 가속인식하여 당기의 비용을 감소시켜 보고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책임기간이 길수록 손상인식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자산손상연구들의 결과를 좀 더 세분화하여 재차 검증한 것이며 전반적으로 기존 연구들과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K-IFRS 도입 이후 경영자들은 다양한 이익조정유인에 의해 영업권 손상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들은 영업권 상각을 폐지하고 매 기간 손상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회계기준의 변경은 당초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재무제표 작성과정에 경영자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개입되어 기회주의적 재무보고를 허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경영자가 사적으로 보유한 정보가 자본시장에 전달되어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보비대칭이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경영자 개인의 편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영업권 회계기준의 변경이 회계정보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라!



삼일회계법인 이사
김종영 세무사

2015년도 1학기부터 세법(TAX LAW)이라는 과목의 강의를 통해 부산 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세법은 세금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을 말하여, 여기서 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되며 그 부담은 기업과 국민이 지는 것이다.

또한,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살아 숨 쉬는 학문으로,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연말정산 대란’과 ‘법인세 세율인상’ 논란을 볼 때 경영학도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학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국세에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있다.

2015년도 1학기에는 국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되나, 법인세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향후 경영대학 학생들이 기업의 재무부서나 회계법인 등에 취업하게 될 경우 가장 많이 접하게 될 분야이다. 법인세법 강의는 회계원리, 중급회계를 이미 이수하였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며,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하여서 법 규정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사례연구, 그리고 실무상 기업들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본 수업을 통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준비를 하는 경영대학 학생들에게는 수업과정을 통해서도 시험준비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또한, 조세전문가로서 대략 16년간의 실무 과정에서 느낀 바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기업 재무부서의 세무담당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저와 첫 인연을 맺게 될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부 외에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면서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저와의 만남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방향을 잡음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14년도에 보았던 한 편의 영화에서 가슴에 와 닿았던 대사를 적으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길에 배어 나오고 길에 배어 나오면 길으로 드러나고 길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플루트와 인간과 경영

교수 이장우

여유가 생기겠지. 하지만, 인간 삶의 속성상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여유 속에 마음의 여백이 생기는 것이요, 그 여백에 ‘친구’와 좋은 일들이 깃들 수 있다. 이 시점에 비로소 행복의 출발점이 만들어진 것이다!

내게 플루트는 그런 것이다. 평소 기본업무에 열중하지만, 그래도 나는 스스로 영혼을 해방하고, 각종 숫자로 가득 찬 머릿속의 한 부분에 여백을 만들어주는 것. 내게는 플루트가 그런 의미이다. 그렇담 내게 플루트는 – 넓은 의미의 취미는 – 경영학이 연구 주제로 삼는 인간에 대한 다른 방식의 접근을 가능케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플루트를 통해 여백을 찾고 그 여백에서 친구를 보며, 친구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경영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더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나의 경험에 빗대어 우리 경영대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는 결국 인간에 대해, 그리고 경영에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러려면 차가운 지성의 한쪽에 따스한 방(여백)을 하나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악기가 됐든 운동이 됐든, 동아리가 됐든, 뭐든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해방구’가 될 수 있다. 그 해방구를 통해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인간 지성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자유롭게 차원 이동을 해보고 싶지 않은가? 그릇을 키우고 그 속에 꼭 따스한 여유 공간을 두고,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을 품고... 이것이 경영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가 아닌가?

– 2015. 01. 15 연구실에서

나는 이따금 플루트를 연주한다. 모두가 퇴근 한 늦은 밤 연구실에서, 홀로 남은 숙소에서, 중간고사 후 첫 시간쯤에... 플루트를 연주할 때 그 청명한 연주 음이 나를 휘감는 느낌이 참 좋다. 내가 전공하는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금융의 세계를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내가 아주 인간다워진 느낌, 학생들과 하나의 인간으로 만나는 느낌... 그렇게 잠깐 펼쳐지는 10여분의 시간이 나는 행복하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경쟁 속에 산다.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 못지않은 치열함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숨어 있다. 그런 와중에 정서는 메마르고 주위 사람들은 모두 경쟁자로 보인다. 어디서 영혼의 해방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가 오직 그런 각박한 삶의 확장일 뿐이라면 우리의 치열한 삶이 좀 왜소하고 초라하지 않은가? 우리의 친구와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두뇌 한편의 여유, 마음의 여백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렇담 여유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인가, 내부로부터 오는 것인가? 나는 십여 년간 플루트를 접하며 느낀 바가 있다. 여유란 스스로 내부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것이다.

연구에, 공부에 쫓기다, 혹은 아르바이트에 쫓기는 중에 ‘자 30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내 정신을 해방해보자!’ 한 다거나 모처럼의 휴일에 ‘좋은 친구와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보자!’ 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풀어놓을 수 있다면, 나는 스스로 이미 여유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 뒤에 찾아오는 심신의 정돈상태는 아름답기 그지없다. 모든 것 끝내면



바 둑 이 야 기



교수 김 정 교



한국 남성의 보편적인 취미생활로 독서, 여행, 축구·야구·등산·낚시 등의 스포츠, 노래·음악감상·온라인게임 등의 오락 등이 있지만, 바둑만큼 연령, 직업, 성별, 재산 등과 관계없이 폭넓게 즐기는 것은 없을 것이다. 바둑은 오늘날 7~8세 어린이부터 80세 이상의 노인까지 폭넓은 계층의 사람들이 즐기는 놀이로 정착해 있다. 2005년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만 20세 이상의 한국인 중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은 20.3%이고, 이 중 69.9%가 지난 1년간 바둑을 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많은 사람이 평소 바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 3국의 공통적인 놀이문화로 정착하여 대중화된 결과, 스포츠계의 세계대회와 유사한 성격의 바둑대회로 삼성화재배, LG배, 농심신라면배, 백합배, 백령배, TV바둑아시아, BC카드배, 응씨배, 춘란배, 한중천원전, 봉황고성배, 주강배, 세계청소년 아마바둑선수권대회 등 크고 작은 세계대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는 아시아인의 스포츠제전인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위상을 높였다.

‘바둑’이라는 단어는 순수한 한글용어로서, 한자로는 ‘기(碁, 棋)’, ‘위기(圍棋, 圍碁)’라고도 한다. 바둑의 별칭으로는 손으로 바둑을 두면서 서로 마음을 통한다는 뜻에서 ‘수담(手談)’이라고도 하며, 仙人의 바둑을 보고 있다가 도끼자루가 썩었다는 일화에서 ‘도끼자루’라고도 부른다. 바둑의 기원은 고대 중국으로 막연히 알려졌으나, 정확히 언제 어디서 시작했는지 밝혀져 있지 않다. 중국이 아닌 북방 민족 중 하나인 선비족이 발명했다는 설에서 고대 만주지역에 거주하였던 우리의 직계조상인 예맥족이 만들었다는 설까지 다양하다. 다만, 약 2,000여 년 전의 중국 문학작품에 바둑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보다 훨씬 이전에 바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는 5세기~7세기 사이에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전파되었다고 본다. 중국의 역사책인 구당서(舊唐書) 卷199 高句麗傳에 “고구려 사람들은 다른 놀이와 함께 바둑을 즐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수서(隋書) 卷81 百濟傳에는 “백제에서도 바둑을 즐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이미 바둑이 널리 보급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에서도 백제 개로왕 때 고구려 승려 도림이 간첩으로 백제에 가 개로왕과 바둑을 두며 국사를 돌보지 않게 하여 결국 고구려군에 의해 개로왕이 죽고 나라는 부둣이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는 일화를 전하고 있다.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나라 고유의 규칙을 가진 순장(順丈)바둑이라는 형태로 전해져 오다가 해방 이후 일본 유학파에 의해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일본의 현대바둑이 전파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바둑은 두뇌 스포츠로서 특히 어린이의 두뇌 계발과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바둑을 잘 두려면 깊은 수 읽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집중력을 키워야 하므로 두뇌 계발은 물론이고 학업 성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매년 세계바둑대회의 우승자들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바둑의 두뇌계발 효과에 대한 좋은 증거가 된다. 그리고 주위가 산만한 아이들의 집중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어 학업 성취도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집중력 강화와 관련된 재미있는 고대의 일화가 있다. 중국 진(秦)나라 때 왕질(王叱)이라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속 깊이 들어갔다가 우연히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니 길이 점점 넓어지고 흰 해지면서 눈앞에 두 백발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무꾼은 무심코 서서 바둑 두는 것을 보고 있다가 문득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옆에 세워 둔 도끼를 집으려 했는데 도끼자루가 바짝 썩어 집을 수가 없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마을로 내려와 보니 마을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한 노인을 만나 자기 이름을 말하자, 노인은 “그분은 저의 증조부 어른이십니다.”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이다.

바둑은 청소년들에게만 유익한 효과가 있지는 않다. 바둑은 성인들의 인생행로와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당나라 때 바둑의 명수였던 왕적신(王積薪)이 바둑을 두는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바른 바둑 자세를 습득하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위기십결(圍碁十訣)을 지어 남겼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에게 큰 가르침이 되고 있다.

십결 중 捨小就大(사소취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해라)는 사회생활에서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좋은 가르침을 제공하며, 攻彼顧我(공피고아, 공격할 때는 자기 돌을 먼저 돌아보라), 彼強自保(피강자보, 상대방이 강하면 자중하라), 勢孤取和(세호취화, 자기편이 약할 때는 화친하라)는 글로벌 시대 무한경쟁을 통해 치열한 싸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기업인들이 한 번쯤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좋은 교훈이 된다.

그러나 바둑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다. 아까운 시간의 낭비는 청소년기의 지식의 균형 성장을 저해하고 성인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특히 문화의 다양성에 익숙해지기 이전의 청소년기에 바둑에 몰입하게 되면 게임중독과 유사한 정도의 외골수에 빠져 본분을 망각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싱가포르 경영대학에서의 뜨거운 한 학기를 마치며



김 경 미 경영 13

싱가포르에 대한 첫인상

싱가포르에 도착한 것은 2014년 8월 초, 한국을 압도하는 싱가포르의 무더위가 저를 먼저 반겼습니다. 공항을 나가자 고속도로를 따라 펼쳐지는 열대나뭇와 습한 공기가 싱가포르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싱가포르의 삼분의 일을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싱가포르는 좁은 국가입니다. 싱가포르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비롯해서 열대 과일의 왕 '두리안'을 본떠 만든 '에스플러

기숙사

제가 한 달 동안 묵었던 기숙사 이름은 "Evans Hostel"로 "Botanic Garden" 지하철역에서도 10~15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다닐 SMU(싱가포르 경영대학)에서 지정해 준 호스텔로 학교 지정 기숙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버스/지하철로 40분이나 되는 먼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도 1달에 2인실이 1인당 70만 원, 1인실은 1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높게 평가하는 점은 기숙사 바로 옆에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공원인 "Botanic Garden"과 수영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Botanic Garden은 아침저녁으로 운동하거나 산책하기에 매우 좋고 기숙사 옆의 수영장은 저녁에 개방하긴 하지만 1.20달러만 내면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Evans Hostel은 학교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것과 운동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같은 가격으로 더 좋은 조건의 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는 바입니다.

네이드 공연장', 머리는 사자 꼬리는 물고기의 형상을 한 '멀라이언' 등등 택시를 타고 지나가면서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 속에서 제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 것은 매우 깔끔하고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도로와 화려한 고층빌딩들이 수놓아져 있는 도시경관이 무더위를 잊게 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포에서 가장 큰 공원인 "Botanic Garden"과 수영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Botanic Garden은 아침저녁으로 운동하거나 산책하기에 매우 좋고 기숙사 옆의 수영장은 저녁에 개방하긴 하지만 1.20달러만 내면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Evans Hostel은 학교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것과 운동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같은 가격으로 더 좋은 조건의 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는 바입니다.

SMU 싱가포르 경영대학

학기 시작하기 전 학교를 잠깐 들렀을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이 지하캠퍼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학생들이 '콩코스'라고 부르는 이 지하캠퍼스는 모든 SMU 건물들을 이어주는 지하통로로 학생식당인 'Kofu(코푸)'와 몇몇 식당, 문구점, 편의점, 서점, 보건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적도 지방이라 열대성 폭우인 '스콜'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지하철에서 바로 이어져 있는 콩코스를 사용하면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고 강의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입학하면 수강신청을 하게 됩니다. 수강신청 한다고 눈을 부릅뜨고 클릭해대는 부산대 수강신청 기간의 모습과는 달리 SMU는 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수강신청 일자를 다르게 하니 수강신청이 무척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하는 수업을 넣지 못한 학생들은 Bidding을 통해 경매형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자 100달러의 사이버머니로 듣고자 하는 수업에 원하는 가격을 걸고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서 낙찰되는 형식입니다. 저도 원하는 수업을 신청하지 못해 Bidding을 했고 이러한 수강신청 방식이 처음에는 매우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경영대학다운 독특한

음식

저는 한국에서도 맛집을 찾아다닐 정도로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음식이 입에 맞을지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김치나 불고기처럼 그 나라의 고유한 음식이 없는 편이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말레이시아나 중국의 영향을 받은 요리가 대부분입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음식이라 그런지 느끼하거나 기름진 음식이 많지만 호커센터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인들은 외식 문화를 즐기기에 곳곳에 호커센터(여

마치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대외활동과 색다른 경험을 해보겠다는 막연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과공부에 치쳐서 미래에 대한 걱정만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학교의 교환학생 시스템을 통해 외국에서 더욱 많은 것을 느끼고 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에서 있을 때보다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며 생각의 폭도 넓어졌고 실전에 가까운 수업을 통해 진로에 대

특한 방법인 것 같아서 매우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현지인 학생들은 4~5개의 수업을 듣습니다. 교환 학생들은 대체로 3~4개의 수업을 듣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가 들은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광고론" 수업입니다. 한국의 보통 대학 수업과는 다르게 기업을 선정해 해당 기업이 학생들이 제작한 광고 안을 보고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전에 가깝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수업 중간에 크고 작은 발표과제들이 많았고 "광고론"뿐만 아니라 SMU의 많은 수업이 프레젠테이션 능력에 매우 비중을 많이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SMU학생들도 '프레젠테이션하면 SMU'라고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대학교 1학년부터 프레젠테이션 위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힘들었던 점은 현지인들이 '싱글리시'를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인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싱가포르에서는 표준 미국식 영어가 아닌 중국어와 영어가 미묘하게 섞인 '싱글리시'를 씁니다. 현지인들의 영어사용 능력은 미국 현지인 못지않지만, 처음엔 '싱글리시'의 발음을 알아듣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러 종류의 음식점을 모아놓고 싸게 파는 오픈된 식당)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물가가 비싸서 실내에서 먹는 식당은 다소 가격이 높지만 호커센터에 가면 여러 종류의 음식을 4~6달러 정도로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꼭 먹어보아야 할 음식에는 치킨 라이스, 칠리크랩, 락사, 사테, 호키엔미, 딤섬 등이 있고 유명한 호커센터는 맥스웰, 뉴턴, 마칸수트라, 라우파삿 등이 있습니다.

한 계획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현지인들과 부딪히며 느낀 것은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도 많고 경쟁력 있는 학생들도 매우 많습니다. 글로벌한 인재가 되고 싶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을 넓게 보고 많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교환학생은 대학생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분명 한 걸음 나아가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수기



윤 선 영 경영 08
부산은행 대리

자격증에 목숨 걸지 말자!

저는 취업 당시 휘황찬란한 국제자격증은커녕 그 흔한 금융 3종 하나 없었고 금융 관련 대외활동도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대학 시절 내내 여행을 다니느라 휴학도 2년 동안 하여 어린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스펙 없이 취업하기',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같은 자기계발서적인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학점, 토익' 충분히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취업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고작 '점수'에 발목 잡혀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저 또한 학과공부는 충실히 하여 과 수석도 몇 번 하였고 토익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자격증을 취득할 시간에 저는 1여 년이 넘도록 세계여행을 하며 히말라야 등반, 사막 횡단 등 특별한 경험과 제2외국어를 공부하였고, 경영학 중 마케팅을 제일 좋아해 공모전 및 각종 대회에서도 10여 회 정도 수상을 하였습니다. 비록 자격증란은 공란이었지만 남들보다 훨씬 다양하고 독특한 삶을 살아왔기에 자기소개서에 복사 붙여 넣기 식

이 아닌 제가 살아온 방향, 가치관, 생각 등 진짜 저의 이야기를 쓸 수 있었고, 면접을 볼 때도 금융 관련 질문이 아닌 저 자신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산은행 5급 행원은 1년에 한 번 채용하며 총 75명 중 남자 70명, 여자 5명으로 특히, 여자 경쟁률이 매우 높지만, 자격증 하나 없이도 저의 대학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있었기에 면접도 전혀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여유 있는 모습이 좋아 보였는지 처음 서류를 낸 이곳, 부산은행에 최종 합격하게 되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은행권에 종사하지만, 은행이든 다른 사기업이든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이라고 해서 은행 관련 자격증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을 선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만의 강점과 매력이 있어 같이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금융권을 준비한다고 해서 빛나는 20대와 대학생활을 자격증 공부에 파묻혀 지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08학번으로 13년도 하반기에 부산은행에 입행하여 이제 1주년을 맞은 새내기 직장인이자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마음만은 아직 대학생인데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취업수기를 쓰고 있으니 새삼 직장인이 된 것이 실감이 납니다.

금융권에 관심이 있는 후배들이라면 은행이나 증권사 취업을 위해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고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하는지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 금융권 지원자들과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에 인터넷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취업수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직장인이 미생은 아니다!

이제부터는 합격 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취업을 앞둔 많은 학생 대부분이 '취업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 뒤의 일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부산은행 합격 후 지방은행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 연봉이나 복지가 은행권 중 최고니까 무조건 가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기였으며 그 결과 제 역량을 가장 잘 펼치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부산은행이라고 판단하여 입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지점에 배치받아 일하며 은행 자금 관련 일이 하고 싶었지만, 자금부서는 신입, 특히 여자가 들어가기에 힘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목표와 하고 싶은 업무가 뚜렷이 생기니 대학생 때는 그렇게도 따기 싫던 자격증 공부가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 학생 때와는 달리 온종일 공부에 투자할 수가 없고 남은 시간이라곤 퇴근 후 2~3시간뿐이었지만 약 6개월 동안 기본 금융자격증부터 신용분석사 등 실무자격증 및 CFA와 같은 국제자격증까지 10여 개를 취득하였고, 국제대회에서 그룹 회장의 통역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공모를 통해 역대 최연소로 서울 자금본부에 발령을 받아 현재 서울 자금본부 금융시장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큰 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 미생으로 인해 어느덧 '직장인 = 미생'이라는 공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직장인이 미생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도 '직장인'이 되면 대학생 때처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없을까 걱정했지만 지난 1년간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결과 어느덧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며 이쪽 분야로 전문가가 되고 싶어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점에서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만지다 지금은 한 건 당 몇백 억, 몇 천억 정도의 거래를 하고 전공 책과 시험에서만 보던 콜론, 콜머니 등 단기자금부터 파생상품 및 채권, 국제스왑(교환:swap)까지 은행 자금 흐름의 중심에서 일하는 저는, 저의 일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직장인입니다.

금융권을 희망하거나 금융권이 아니더라도 취업에 대해 걱정을 가진 후배님들, 이미 충분히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만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점수화된 스펙이 아닌 본인만이 가진 특별한 강점이 무엇인지, 회사이름이나 주변 말에 동요되어 회사를 결정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취업 이후에 하게 될 업무에 대하여도 생각하여야 합니다. 회사라는 기계의 부품 중 하나가 되어 미생처럼 살 것인지, 회사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살 것인지는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하루의 절반 가까이 직장에서 일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 일을 하며 마지못해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시간 아닌가요? 누군가에게 조언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의 글을 통해 취업과 직장 생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 소비 부진의 늪에 빠지다

최근 신문 지면상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비’라는 단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뜻의 의미로 ‘소비 부진’이라는 단어로 주로 표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소비가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해보도록 하자.



유 상 훈 경영 09
ERIP 9기

우리나라의 소비현황

소비현황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소비란 정확히 무엇인가? 소비의 사전적 의미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소모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즉,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거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들이 전부 다 소비의 범주에 들어간다. 따라서 소비부진은 재화나 용역의 소모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이는 곧 한나라의 경제가 침체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는 어떤 상황인지 다음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자.



보시다시피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GDP 성장률을 밀돌고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민간소비가 GDP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 말고도 민간소비가 GDP 성장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보여주는 GDP 성장기여도 증감률 측면 역시 크게 악화하여

(2010년: 2%p → 2013년: 1%p) 우리나라 소비위축이 우려할 정도로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소비가 부진한 것에 대해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 가계소득 개선 미흡,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물론 이 요인들이 소비부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심화된 소비침체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 요인들은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이지, 최근에 이런 요인들이 급작스럽게 악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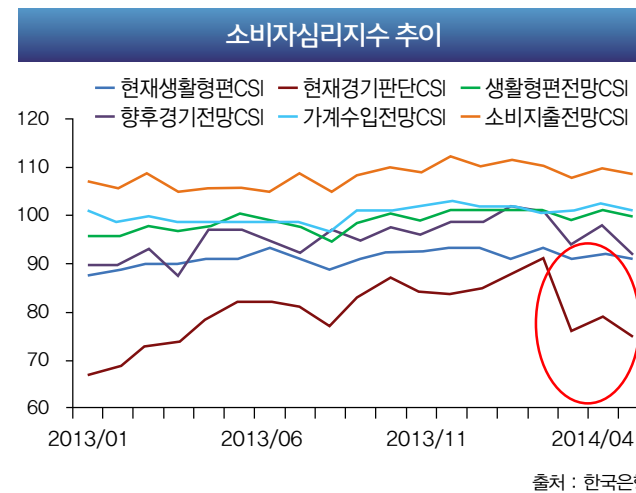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처럼 급속도로 악화된 소비부진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는 소비부진의 원인을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부분이 아닌 ‘소비자심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부진의 원인과 소비자심리의 관련성

소비자심리와 소비부진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항상 소비하기에 앞서 향후 경제상황이나 본인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금 소비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소비를 줄이는 게 좋은지 판단한다. 즉, 소비와 소비심리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비부진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소비자심리’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소비자심리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은 바로 소비자심리 지수(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에 있다.

최근 소비자심리지수 의미 & 추이

소비자심리지수는 한국은행이 소비자들에게 생활형편, 경기상황 등을 질문하고 응답결과를 집계하여 작성하는 지수이다. 크게 현재 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 경기판단, 향후 경기전망 등 6개의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표준화해서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 소비자심리지수이다. 그리고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치가 100으로 100보다 클 경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을음을, 100보다 작을 경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위의 그래프는 소비자심리지수의 6가지 구성 부분의 최근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6가지 부분의 추이가 각자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현재 경기판단 CSI 지수만 최근 들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최근 소비의 방향과 미묘하게 달랐음은 우연의 일치일까?

소비부진 : 경기에 대한 믿음 붕괴

현재 경기판단 CSI는 이름 그대로 소비자들이 현재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응답을 집계하여 나타내는 지수이다. 다른 지수들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는 것과 상반되게 이 지수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소비부진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부진 상황은 심리학 용어 중에 자아실현적 위기(Self-fulfilling crisis)라는 말로써 설명할 수 있다. 이 용어는 자아실현적 예언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써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경제위기 의식이 심리를 악화시켜 실제로 더 큰 경제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는 현상이라는 경제학적 의미를 가진다. 이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과도한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소비가 침체 되는 과정까지 왔고 이것이 조금만 더 지나면 실물경제에 실제로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따라서 실제로 자아실현적 위기로 인해 경제가 침체 되기 전에 이 연결고리를 끊을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 필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핵심은 소비자들의 심리 혹은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냐이다. 즉, 소비자들이 경제가 곧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비록 현재 경제상황은 좋지 못하더라도 소비자들은 향후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이것이 곧 자아실현적 위기를 극복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은 누가 심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경제는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거기에 소비자들의 심리 또한 악화되어 미국경제는 이 중고(苦)를 겪고 있었는데, 그때 미국정부에서는 양적완화라는 극단적인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소비자들은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비록 실제 경기는 좋지 않았지만 소비를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얼어붙은 미국경제에 따뜻한 봄을 가져다주었다. 미국 외에도 유럽은 최근 TLTRO, 예금금리 마이너스 등의 초강수를 두어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했고, 일본은 잘 알다시피 정부의 아베노믹스로 일컫는 정책을 통해서 잃어버린 20년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은 각국의 경제주체들이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하는 데에 크게 일조하였다.

우리나라도 현재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초이노믹스’로 일컫는 정책들을 통해서 앞선 국가들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초이노믹스는 내수활성화, 민생안정을 목표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LTV?DTI 완화 등의 정책을 실시하는 것인데, 그 첫 단계가 바로 앞의 두 정책들을 통해서 얼어붙은 소비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이 사실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모든 정책에는 득(得)과 실(失)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이런 움직임만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소비 진작’을 시작으로 ‘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때까지 한나라의 든든한 살림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학생회장·부학생회장 선출 소감 인터뷰



정 기 원 · 김 태 오 경영 10



안녕하세요. 새로운 경영대학 회장 부회장님!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5년도 경영대학 학생회장 10학번 김태오, 부학생회장 10학번 정기원입니다. '청춘'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학우들의 대학생활! 청춘!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하고 출마했고, 당선되었습니다. 혹여나 고학번 두 명이 대표를 맡아서 업무에 소홀할 것 같아 우려하시는 학우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저희는 올해 2015년, 경영대학 학생회에 매진할 것임을 다짐하겠습니다.



두 분 다 고학번이신 데다 남성분들이라 굉장히 든든하고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올 한 해가 무척 기대되는데요! 우선 어떤 계기로 학생회장 부회장에 출마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1학년 위주의 학생회 활동, 고학번은 소외당하는 경영대학 분위기에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학번에서 학생회장이 나왔던 만큼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고학번에서 학생회장이 나온다면 고학번 학우 분들이 좀 더 학생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을까, 학교생활을 조금이나마 더 해본 선배들이 학생회를 이끌어간다면 경영대 학우들의 좀 더 실질적인 관심사와 현실적인 요구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에서 실천으로 옮기기 위하여 작년에 학생회에 지원하여 부원으로 활동했었고, 그때 얻었던 경험이 차기 학생회장으로서 지녀야 할 학생회의 방향이나 비전에 대하여 더욱 생각해 볼 수 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매년 학생회에서는 학우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나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는 어떤 공약으로 경영대학 학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개수만 많고 지키기 힘든 공약보다 저희가 더 잘할 수 있고, 학우 여러분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워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경영학과를 포함한 인문 상경 계열 학과들의 취업문이 좁아져 학우 여러분의 취업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년 불문 대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취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에 저희는 학우들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여 저희 공약의 초점을 취업에 두었습니다.

특히 학우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페이스북이나 경영대학 홈페이지(biz.pusan.ac.kr)를 통한 공모전, 취업, 자격증 정보 지원을 확대하고, 공모전과 스터디를 위한 팀원 구인 네트워크 구축, 그간 지원받지 못했던 관세사, 세무사 등의 경영학과 관련 공인자격증 공부 환경 지원, 다양한 업종별 선배의 팁을 들을 수 있는 특강을 주 공약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취직 관련 공약 외에도 학우들이 자주 쓰는 물품들을 학생회에서 갖추어 대여해주는 물품대여사업과 좀 더 활기찬 대학생활을 위한 반별 학번 간 연결고리, 경상 통합제전, 비즈니스 컵 같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생회는 어떠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나요?

보통의 학생회처럼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단둘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부서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획부, 홍보부, 문화부, 교류부, 정보부, 총무부 여섯 부서 체계로 작년까지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올해 또한 큰 틀은 바꾸지 않았으나 앞서 저희가 말했듯이 공약과 활동을 취업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획부를 지원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원부에서는 저희 주 공약 사업을 위한 활동을 주로 맡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작년 학생회 부원들의 임기가 12월로 끝나서 저희 둘과 부장 여섯 명, 총 여덟 명이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다가오는 3월에 새로운 학생회 부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포부를 들어보고 2015년 한 해 동안 경영대학을 위해 힘써 주실 제5대 경영대학 학생회 '청춘'에 회원경영 가족 여러분의 큰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학생회는 학우 분들의 권익 보장/향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학생회에 힘이 있어야 하고 그 힘은 학우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경영대학 학생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하며, 경영인들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MBA주관 학술발표대회 수상 수기

Abstract

1. Purpose and concept

LINE first launched in Japan in June 2011 and quickly gathered one hundred million users. Recently, the number of users reached 450 million and is expected to reach 500 million by the end of this year. Despite being a second mover, LINE is quickly gathering users in the global market. What we want to figure out is how LINE could be a global messaging app and What was the key to LINE's success. Therefore, we need to search history of NHN's future and past.

2. Introduction to LINE

LINE is known as one of the World's top 3 mobile messenger applications. LINE also provides 17 different languages and users have sent and received over 10 billion messages through its services so far.

3. Analysis of LINE

Before 2011, there was no mobile instant messaging app in Japan. However, After Tohoku earthquake hit

Japan, the needs for it had increased. LINE Corp. captured the chance and created "LINE" as the first instant mobile messaging app.

There were 3 steps how LINE grew in Japanese market. First, it focused on social listening. LINE built trust for customers by keeping communicating with them. Second, it provided free call & stamps. In addition to this, TV CM helped LINE got popularity. Lastly, it cooperated with many companies providing a new communication channel with their customer as account. Also, as it affiliated with telecommunication companies, it could provide pre-load in many smart phones.

Summing up the success of LINE, it can be seen as starting point of domestic mobile industry's globalization. And the reasons why it could succeed in Japanese market can be abstracted with trend, preemption effect, localization and communication.

• 참가자 •

경영학과 이예지, 박현웅, 오승향, 김유빈

• 참가동기 •

재무회계 수업 중 최종서 교수님께서 대회를 소개하고 참가를 권유하셔서 팀을 꾸려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

먼저 팀을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참가 인원이 2명에서 최대 4명이었고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만 출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인들 위주로 참가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을 같이 들었던 후배와 함께 총 4명이 팀을 이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방학을 시작하면서 대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총 2번으로 나뉜 대회 중 1차 발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3회 특정요일을 정해서 꾸준히 만나 준비를 하였습니다.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주제를 정하는 것과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경영사례연구를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어떤 식으로 발표를 준비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처음 이 대회를 추천해주신 최종서 교수님을 찾아뵙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해 주셨고, 많은 사례를 보여주시면서 학부생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덕에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1차 발표를 마치고 난 뒤, 심사위원 교수님들께서 주신 피드백을 바탕으로 2차 영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즉,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이를 영어로 다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동시에 발표 연습을 녹화하고 이를 다른 팀원들과 함께 확인하면서 피드백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해프닝 또는 느낀 점 •

2차 발표는 1차 발표와 다르게 MBA의 모든 학생과 일반 청중이 참관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로서 매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1차 발표와 비교하면 2차 발표에서 다른 참가자들의 내용과 수준 또한 괄목할 만큼 향상되었기에 무대 위에서 발표하면서도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억에 남는 해프닝은 2차 발표 당일, '그린카(친환경 자동차)'를 주제로 하는 팀이 직접 몰고 온 차가 공교롭게도 저희 팀이 주제로 삼은 기업의 홍보용 차량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를 보고 진짜 해당 기업의 홍보팀이 참석한 것인 줄 알고 당황하였지만, 나중에 발표를 듣고 난 뒤, 괜한 우려에 걱정한 저희의 모습에 많이 웃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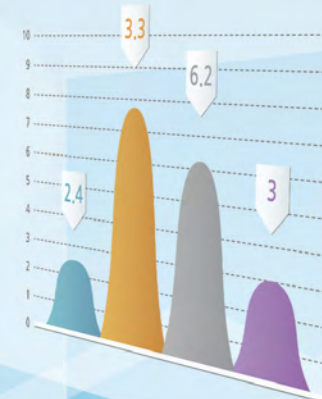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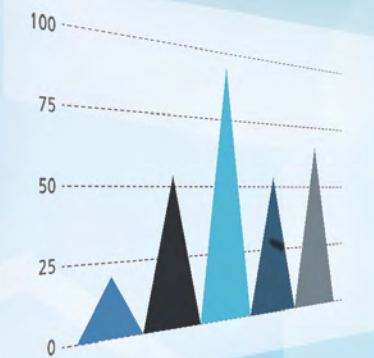
방학 내내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기분은 좋았지만,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듯, 제한된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내년에 참가하시는 다른 학부 팀들이 있다면, 핵심을 좀 더 간결하게 전달해서 더욱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회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참가를 독려해주신 최종서 교수님과 더운 여름 뜨거운 열정으로 새벽 늦게까지 함께 동고동락하며 고생해준 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대학생 주식모의투자대회 학교리그 부문 2등



대회기간 :
2014. 9. 22. ~ 2014. 11. 14.

[준비 과정]

모의투자대회에 관심이 있는 동아리 원들을 조사하여 모바일 메시지를 이용해 팀을 꾸리고, 장(場)이 열리는 9시 이전에 종목토론과 시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며 그 날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9명이 모두 따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팀 단위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적절히 분산함으로써 장(場)이 안 좋은 시기를 고려하여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방어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대회 기간과 실적 발표 시기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에 담았고 마지막 날에는 순위를 굳히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였으나 수익률이 2등에서 4등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PPT 발표 후 순위는 다시 역전되어 성균관대가 차지하고 있던 2등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대회참가 계기]

평소에 동아리회비로 직접 주식에 투자하다 보니 주식대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신한 모의투자대회에서 대학생 모의투자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모의투자대회는 개인전 형식으로 경쟁하는 데 신한 모의투자대회는 이와 달리 학교 동아리 대전이 있다는 것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동아리가 주식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궁금했고 무엇보다 동아리 원들과 함께 투자하면서 좋은 추억을 쌓을 기회라고 생각하여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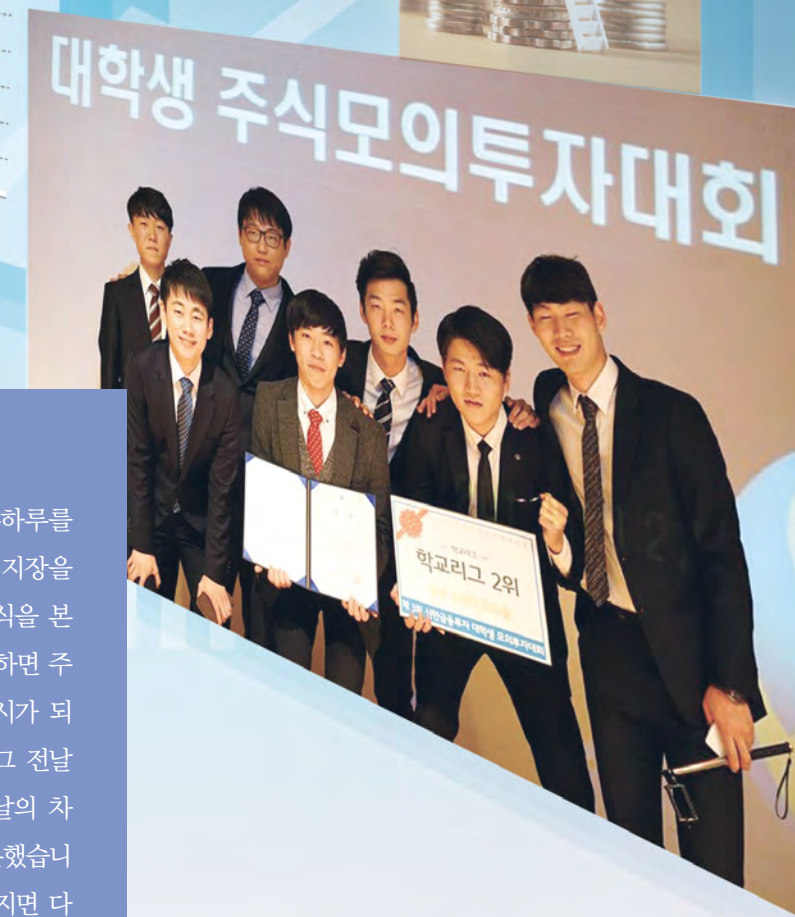
[대회 내용]

다른 대회들과 달리 모의투자대회는 하루하루를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많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수업시간에도 핸드폰으로 주식을 본다고 배터리는 남아나지 않았고 만나기만 하면 주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場)이 열리는 9시가 되기 전이면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관련된 그 전날이나 오전의 뉴스를 서로서로 올렸고 전날의 차트를 보면서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를 의논했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다 같이 기뻐하고 떨어지면 다 같이 안타까워하기도 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순위에 대한 욕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장(場)이 안 좋은 시기라 그런지 다른 동아리들도 수익률이 저조했고 3% 정도의 수익에도 10위안에 드는 것을 보고 한번 욕심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익률이 5등 안에 들어가게 되면 수익률 70%, PPT 발표 30%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SMP는 수익률 기준 5등을 하였기에 PPT에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1, 2등과 수익률 격차가 아주 컸기 때문에 속으로는 3등까지를 최선의 결과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PPT 발표를 맡은 SMP 9기 김종영 선배님께서 심사위원들에게 극찬을 받을 정도로 PPT 발표를 잘해주어 우리의 순위는 5등에서 2등까지 올라가는 극적인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대회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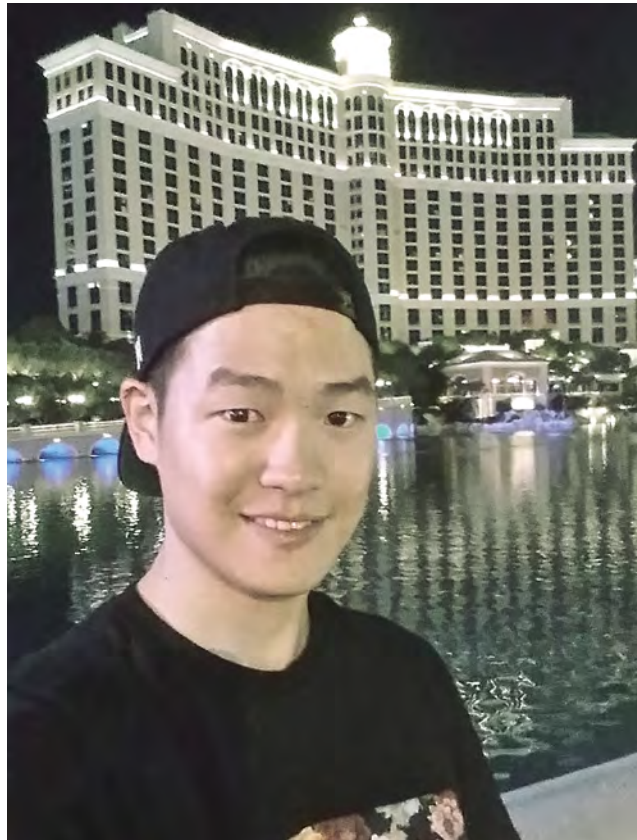
종목과 관련해서 다름도 있었지만, 이는 서로를 설득해 가는 과정이었고 이는 남을 설득하는 능력을 길러 주기도 하였습니다. 시상식이 개최된 날 참가자 9명 중 7명이 서울로 상을 받으러 갔으며 거리가 제일 멀었음에도 다른 수도권 대학교보다 시상식 참가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만큼 성취감이 컸기 때문에 다들 그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동아리 원들과 좋은 추억을 쌓았으며 상금과 상장도 받아 아주 즐거운 날들이었습니다. 이 대회를 시작으로 우리 SMP 동아리 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또 다른 기회를 찾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글로벌 챌린저 탐방기

김영준 경영 12



작년 한 해를 뒤돌아 보면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효원경영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던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고, 또 벌써 4학년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네요. 그만큼 작년 한 해가 스스로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아주 빨리 흘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 한 해는 많은 고민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과 해야 할 것들 사이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등등 답을 쉽게 얻을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며 방학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에 도전하자, 후회하지 않도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LG Global Challenger'입니다. LG글로벌 챌린저는 트렌디한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 각 지역에 탐방을 도전하는 해외탐방 공모전으로, 매해 전국의 많은 대학생이 도전하고 있는 공모전입니다. 1학년 때부터 정말 해보고 싶었던 공모전에 드디어 도전한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긴 여정을 같이 떠날 동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피누(부산대 학생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뜻이 맞는 팀 동료들이 모여자마자, 바로 공모전 지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패기 넘치게 시작은 했지만, 사실 주제 선정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공유경제'라는 소재를 좀 더 잘 다루고 사회 트렌드에 맞는 주제로 가다듬기 위해서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 없이 고민했습니다. 주제가 확정되고 나서는 국내 탐방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공유경제와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전년도 글로벌챌린저 선배님들을 만나 글로벌챌린저 활동에 대해 조언을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까스로 지원서를 제출한 뒤, 공모전을 준비하느라 소홀했던 것들을 챙기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중간고사 기간이 지나있었고, 저희는 초조한 마음으로 탐방대원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합격자 발표 날, 30팀의 합격자 팀 명단에서 저희 팀의 이름 '셀위'를 발견하는 순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았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의 순간도 잠시, 탐방 일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부랴부랴 탐방 준비에 다시 매진했습니다. 탐방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인터뷰 상세 일정을 잡고, 탐방에 앞서 전국 각 대학의 탐방대원들과 함께 LG연수원인 인화원에서 탐방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2014년 8월 7일, 대망의 탐방 일이 다가왔고, 저희 셀위 팀은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는 공유경제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도시로, 공유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후, 저희 팀은 샌프란시스코 시청을 방문해 Una Fannon을 인터뷰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민 단체인 Peers의 직원인 Kit, 비영리기관 Spur의 대표인 Egon, Collaborative Lab의 대표인 Rachel Botsman 등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유경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탐방 기간 내도록 인터뷰 질문지를 준비하고 탐방 활동을 인터넷으로 직접 중계하는 것과 동시에 결과 보고서 작성도 준비해야 했기에, 정말 빡빡하게 강행군을 해야 했지만, 틈틈이 시간을 쪼개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운 지역도 둘러보고 주말에는 LA, 라스베이거스를 짧은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즐거운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이 어찌나 와 닿던지요. 꿈만 같았던 2주의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리라는 마음을 다지며 샌프란시스코에 작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는 순간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기가 무섭게, 저희에게 주어진 건 결과보고서와 최종 PT 발표 준비였습니다. 해외 탐방을 마친 30팀 중 우수 팀에게 최종 시상식을 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언제나처럼 다시 또 주어진 미션에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밀린 인터넷 중계 자료를 작성하고, 결과보



고서 PPT를 만들고, 최종 PT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팀 동료

끼리 서로 위로하고 다독여 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과제들을 끝마치고 최종 시상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름의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전국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데다 참신한 주제를 선정했던 팀들이 워낙 많았기에 수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수상에서 저희 팀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너무 얼떨떨하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저는 소리를 지르며 수상 대에 올랐죠. 노랫말을 빌리자면 '꿈인 듯, 꿈 아닌,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LG 글로벌챌린저 활동은 끝을 맺었습니다. 불과 1년 전과 비교하면, 수기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저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도전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1년 전의 저에게, '고민 끝에 도전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싶을 정도로 많은 선물을 받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담담하게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글을 써내려 가다 보니 글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경영학과 학우들께 작년 한 해 제가 힘들게 때마다 저를 붙잡고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해 준 말을 건네 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현실에 맞추지 말고, 현실을 꿈에 맞춰라'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발전기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조적 역량을 갖춘 경영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과 차별화된 발전 모델을 창출하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대학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교육연구인프라 혁신과 연구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은 2009년 더 타임스 QS평가에서 국내 종합대 6위 등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비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혁신과 교육연구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경영대학의 오늘이 있기까지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들과 각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경영자께 깊이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장 최 중 서

발전기금 사용목적

+ 장학기금_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원

최우수 장학생 : 전국순위(0.5%) 이내의 최우수 인재
우수 장학생 : 전국순위(2%) 이내의 우수 인재
국제교류 장학생 : 우수학생 해외연수 지원 및 교환학생 지원

+ 국제교류기금_글로벌화를 위한 학생교류와 외국인 교수 유치

외국인 교수 확보사업 : 전공 영어강의 확대와 외국인 교수 초빙
국제학술대회 : 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

+ CPA수험생지원_공인회계사 배출을 위한 장학금 지원

CPA 2차 합격자에게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 면제 함
CPA 1차 합격자에게 포상금 지급
방학기간 전국 유명강사 초청 교육 프로그램 운영
CPA 준비생의 24시간 학습공간 확보를 위한 교육환경정비
CPA 1차/2차 합격자에 대한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 국제경영교육인증(AACBS)기금_경영학 교육시스템 확립

글로벌 기준의 경영학교육의 국제인증 필요
경영학교육 기반확충에 2011년부터 5년 소요

+ 대학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기금_각종 대학운영개선과 건물 및 첨단 강의시설 확충

대학운영개선기금: 대학 장기발전을 위한 운영 개선
경영대학원 전용건물 건설 : 경영전문대학원의 연구동 등 전용건물
첨단강의시설 : 멀티미디어 강의실, 교육기자재 등 첨단강의시설확보

+ 학술연구기금_교수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SSCI 최우수 논문포상: 세계 우수 논문지 게재 논문
세계적 석학 초빙 사업: 연구와 교육을 위한 세계적 석학 초빙

경영 발전기금 출연방법

경영 발전기금 - 경영대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자가 지정하시는 사업에 자율적으로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을 출연자가 지정하신 목적에 따라 경영대학 발전기금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출연하신 분에게 기금 운영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경영 1인 1계좌 갖기운동 · CPA 1인 1계좌 갖기 운동

출연자가 매월 1만원씩 일정기간 자동이체로 불입하는 방법입니다.

+ 경영 등록금 한번 더 내기 기금

등록금을 한번 내어 후배들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출연자가 장학금의 지급시기와 수혜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경영 특별목적기금

출연자가 경영대학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입니다.
출연자가 기금명칭을 정하고 해당기금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목적성 축적기금

출연자가 지정한 목적의 기금으로 축적하고, 이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 감면 혜택)

기금 출연자에게 대한 예우

+ 미리내클럽(100만원 이상) 예우

학교홍보물 우송 / 부산대학병원 할인

+ 웅비클럽(1,000만원 이상)추가 예우

출연자명 본관 벽면 각인 보존 / 도서관 이용증 (열람, 대출) / 차량 무상 출입 등록 (1대)
평생교육원 수강료 30%할인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 국제언어교육원 수강료 30%할인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대학만찬 등 학교행사 초청 (연 1회) / 청남 오제봉 선생 서예 병풍 증정 (3,000만원 이상)

+ 금정클럽(1억원 이상)추가 예우

감사패 증정 (총장)

+ 문창클럽(5억원 이상)추가 예우

명의 건물명 헌정 또는 흉상, 부조상, 공덕비 건립 (4중 택1)

+ 효원클럽(50억원 이상)추가 예우

부산대학교병원 VIP 평생무료진료권 증정

상과대학·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993년 3월~2010년 8월 (단위 : 천원)

+ 금정클럽(1억원 이상) 김종갑 100,000

+ 응비클럽(1,000만원 이상)

노대섭	48,000	김종태 대표	20,000	김승영 (주)금영 대표	10,000
김일곤 경제학과 교수	30,000	김태홍 (주)정관 대표	20,000	조관승 회계사	10,000
노선호 풍경정화(주) 대표	30,000	최신형	18,000	최종열 경영대학 교수	10,000
권청길 월드하우징 대표	30,000	오명열	17,500	손태영 (주)케이씨 대표	10,000
이근철 (주)삼정 대표	30,000	강판수 (주)청강 대표	15,000	정판덕 새부산관광 대표	10,000
우한호 (주)피앤에이 대표	30,000	구자용	10,000	이장생 (주)아남약품 대표	10,000
이상환 세기아케마 대표	30,000	이상일	10,000	박태복 (주)티비카본 대표	10,000
김영주 유창중건설 회장	30,000	이원태 (주)경일통상 대표	10,000	최춘식 AMP동창회장	10,000
구자봉 (주)미래파크 대표	20,000				

+ 미리내클럽(100만원 이상)

김정호 (주)경국 대표	5,000	이해주 경제학 명예교수	2,000	임정덕 경제학부 교수	1,000
김일우 브릿지증권 지정장	3,500	최정환 우성식품 대표	2,000	송창년 대광닛볼(주) 대표	1,000
이정상 보생 대표	3,000	박철병 성도회계 이사장	2,000	장지환 성도회계 이사장	1,000
박수만 용진건설(주) 대표	2,500	방수한 AMP52 대표	2,000	곽선희 경영대학 교수	2,500
황보석기 AMP50 대표	2,500	김영식 AMP골프회장	1,000	김태혁 경영대학 교수	1,386
박용득 용진건설 대표	2,500	안태원 (주)한아 대표	1,000	조영복 경영대학 교수	1,800
류 열 일신산업 대표	2,000	김상철 시티엔지니어 대표	1,000	지성권 경영대학 교수	1,500

+ 등록금 한번 더 내기

교 원				동 문			
최종열	1,500	김호범	1,500	김형우	1,500	김은홍	2,000
황규선	5,000	신종국	1,500	조헌제	1,500	옥치장	2,000
곽선희	1,500	방호열	1,500	정윤재	1,500	박기순	1,500
김창수	1,500	김진욱	1,500	김지완	4,500	정계섭	1,500
문병근	1,500	이갑수	1,500	권혁태	2,000	김형진	1,500
하충룡	1,500	강원진	2,000				
이균봉	1,500						

+ 단체 출연

최고경영자과정(AMP) 12~57기 약 400,000									
33기	27,000	41기	35,000	46기	23,000	51기	29,500	56기	17,000
36기	23,500	42기	26,500	47기	34,000	52기	21,500	57기	26,000
37기	29,500	43기	35,000	48기	29,500	53기	29,000	경맥 75동기	10,000
39기	30,500	44기	23,000	49기	29,500	54기	17,500	전문경영자 2,3기	10,000
40기	27,500	45기	32,500	50기	24,500	55기	26,500	MBA 37기	2,500

+ 기관 출연

부산발전연구원 원장 김일곤 임정덕	38,500
(재)울산발전연구원 원장 서근태	29,000
농협 부산대지점 지점장 전동배 김부근 김동현 각 15,000	45,000

+ 마라톤 후원금(33,269)

구자봉	10,000	MBA 34기~40기 김태곤 등 220여명
이병걸	1,000	AMP 45기~54기 박종영 등 80여명
(주)신화사	1,000	Techno-MBA 1기~3기 권오중 등 24명

+ 매월 자동이체

김유일(10만원, 2008년 6월 부터)

경영대학(경영학부) 발전기금 출범 이후

2010년 9월~ (단위 : 천원)

경영학부는 2008년 6월부터 '부산대학교 발전기금' 내에 '경영학부 발전기금'을 독자적으로 조성하여 왔으며, 대학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경영대학 발전기금'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경영대학으로 독립한 후 경영대학 발전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기금 조성대상을 AMP과정만이 아니라 MBA과정과 경영학부를 졸업한 동문 및 일반 지역 유지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경영대학 출범 후 경영대학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경영 1인 1계좌 갖기 운동·CPA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더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많은 동문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 금정클럽(1억원 이상) 정준수 | 경영대학 명예교수 100,000 (경영인산장학기금으로 출연)

+ 응비클럽(1,000만원 이상)

김성자 베델농산 대표	10,000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20,000	김종관 경영대학 교수	10,000
김유일 경영대학 교수	10,000	AMP 총동문회	30,000	2012 MBA 원우회	10,270
안 승 APM28대 총동창회장	10,000	전상우 MBA 43	10,000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10,000
최종열 경영대학 교수	10,000	신종국 경영대학 교수	10,000	강병춘 금오기전	11,000
주영찬 APM 60	10,000	임동찬 니오여학원	11,366	(주)지이엠	10,000

+ 미리내클럽(100만원 이상)

문성욱 용원개발 대표	5,000	김재오 AMP 59	1,000	최윤영 MBA 42	1,000
김경희 AMP 59	5,000	배근호 AMP 59	1,000	곽지영 MBA 43	1,000
송미란 MBA 41	5,000	정동순 MBA 41	1,000	김영이 MBA 43	1,000
박철병 성도회계법인 대표	5,000	문병혁 MBA 41	1,000	김승태 MBA 43	1,000
장지환 성도회계법인 대표이사	5,000	이우영 경영사 상무이사	1,000	김종범 MBA 43	1,000
강종민 한창엔지니어링 대표	5,000	손영표 Mindsystem 대표	1,000	김창완 MBA 43	1,000
MBA 44기 원우회	5,000	김대철 AMP 55	1,000	류제민 MBA 43	1,000
부산대 상대 동문 교수회	4,000	조강래 AMP 55	1,000	박기원 MBA 43	1,000
김정교 경영대학 교수	3,000	이우식 AMP 55	1,000	박동익 MBA 43	1,000
이상래 AMP 59	3,000	진병수 AMP 55	1,000	안지홍 MBA 43	1,000
민병권 AMP 59	3,000	김용오 AMP 55	1,000	이 인 MBA 43	1,000
정희자 MBA 41	2,000	김영식 MBA 42	1,000	이제용 MBA 43	1,000
손 인 MBA 동문회장	2,000	김동률 MBA 42	1,000	이창규 MBA 43	1,000
조규성 MBA 42	2,000	박미현 MBA 42	1,000	강민권 거림베스트	1,000
김영순 교직원	2,000	양길석 MBA 42	1,000	권란희	1,000
세무법인 WE동래	1,290	윤성차 MBA 42	1,000	김현우	1,000
황건호 전국투자협의회회장	1,000	조비송 MBA 42	1,000	최민호	1,000
박성훈	1,500	채창호 MBA 42	1,000	노사관계전문가과정 5기	2,300
설영오	1,000				

+ 소액기부자(100만원 이하)

김종세 MBA 42	500	김현준 MBA 44	300	이채성 MBA 44	300
전경준 MBA 44	500	문주상 MBA 44	300	이현욱 MBA 44	500
김정석 MBA 45	500	박기호 MBA 44	500	정명진 MBA 44	500
박미숙 MBA 43	300	신민화 MBA 44	300	조현진 MBA 44	300
이균봉 경영대학 교수	200	신영섭 MBA 44	200	진순미 MBA 44	200
문희준 MBA 42	200	유용준 MBA 44	300	채현식 MBA 44	300
권춘오 MBA 44	500	윤미라 MBA 44	300	최정진 MBA 44	300
김민수 MBA 44	300	이기만 MBA 44	500	홍승표 MBA 44	300
김범석 MBA 44	200	이상부 MBA 44	500	홍정혜 MBA 44	500
김부미 MBA 44	300	이완범 MBA 44	300	황경선 MBA 44	500
김준우 MBA 44	500				

+ 단체출연

최고경영자과정(AMP)					
58기	15,000	59기	25,000	60기	30,000
61기	46,000	62기	23,000	63기	40,000
64기	50,000				

+ 경영 1인 1계좌 – 1계좌는 매월 1만원씩 자동이체로 불입(계좌수)

교 수					동 문				
강상훈 (3)	김동일 (1)	김종기 (1)	서문식 (3)	이균봉 (1)	김홍근 (1)	한미영 (2)	김두성 (5)	김강수 (1)	이동은 (1)
고광수 (5)	김명종 (1)	김진우 (3)	엄철준 (3)	이장우 (3)	손 인 (10)	김상철 (2)	김승태 (5)	곽지영 (5)	박정일 (3)
김유일 (10)	김진욱 (1)	옥기울 (3)	장활식 (1)	최중서 (3)	김일우 (3)	전상우 (10)	박인규 (2)	김정열 (5)	전우철 (1)
김창호 (1)	이찬호 (1)	조영복 (3)	최종열 (10)	최상문 (3)	김형석 (2)	정광택 (5)	박기원 (1)	반태옥 (5)	김진영 (2)
홍태호 (3)	최수형 (1)	곽춘중 (1)	김기석 (1)	김정교 (1)	이종훈 (1)	박윤봉 (5)	최해관(2)	오상진 (1)	진은경 (3)
					이진호 (2)	강정훈 (5)	전경준 (2)	이재훈 (3)	

+ CPA 1인 1계좌 – 1계좌는 매월 1만원씩 자동이체로 불입(계좌수)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남일회계법인
이병찬 (10)	구태우 (3)	김병선 (1)	문병현 (1)	이지희 (1)	김휘학 (5)	김동휘 (3)
정민수 (5)	오상표 (3)	홍영표 (1)	박진호 (1)	정원호 (1)	박일환 (3)	장호일 (3)
조정환 (3)	정동수 (3)	강병욱 (1)	성유득 (1)	조아라 (1)	공경태 (1)	조용환 (3)
성낙필 (3)	허재혁 (3)	권한수 (1)	이상후 (1)	천정봉 (1)		
공병진 (3)	최정미 (1)	김도균 (1)	이주식 (1)	허태원 (1)	성도회계법인	동원회계법인
진은경 (1)	김민희 (1)	강헌태 (1)	김영수 (1)	이광희 (1)	박근서 (10)	나용주 (5)
손정화 (1)	김정동 (1)	박상욱 (1)	이동계 (1)	이웅기 (1)	예상우 (5)	강명근 (2)

+ 헌물 기부 임동찬 | AMP61 인터넷강의 수강권 300매(4,500만원 상당), 토익교재 250권(300만원 상당)

+ 경영대학 발전후원회 지원

박은주 (주)엘큐어	18,000	전상우 두산인프라코어(주)	5,000	김태명 (주)케이시에스	2,000
박창수 (주)씨에스티	12,000	김종현 (주)펠리테크	3,000	최태은 SKC(주)	2,000
부산상대 동문	10,049	효원회	1,000	박상용 MBA 44	500
MBA 45기 원우회	10,000				

+ 2012 사랑의 김장 담그기 후원

AMP					
강병중 넥센월석문화재단	10,000	이영희 금호	10,000	조성제 원광종합건설	5,000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10,000	이관길 AMP 총동창회 회장	2,000	AMP 62기	3,000

MBA					
손 인 하나인치과병원	10,000	경석희 OB	500	류제민 메트라이프생명	50
전상우 두산인프라코어 부산	10,000	옥미화 송원식품	300	지대연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50
강병춘 금오기전	10,000	박기호 세광산업	300	홍승표 로이드선급협회 아시아	30

경영대 교수					
강상훈	230	서문식	230	옥석재	100
고광수	230	엄철준	230	최종열	1,000
김진우	230	옥기울	230		

상대동문회	
김보두 부산상대 동창회 회장	500

재능 기부		
조광포토피아 사진촬영	창미사 현수막	만수출판사 전단지

추운 겨울이 지나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함께 저희 또한 효원경영의 알찬 내용과 다양한 구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8호를 마지막으로 효원경영을 떠나게 되었지만 1년 반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편집부의 일원으로써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리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나현이와 현기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매년 효원경영의 길잡이가 되어 지원해주시는 최중서 학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도움을 주신 김경영, 김효정, 김지은 조교 선생님, MBA, AMP, 동문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제4의 멤버로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자료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성균이 오빠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효원경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7호에 이어 효원경영 8호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분께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 두 번째로는 경영대학 안에서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생각, 세 번째로는 경영대학의 학우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소식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들로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며 같이 수고했던 영주 누나, 그리고 나현이와의 1년은 대학생 시절에 있어 스스로 어떤 일을 기획해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8호를 준비하면서 늘 효원경영 편집부에 수고한다고 말씀해주시는 최중서 학장님, 가장 가까워서 지원해주시는 김경영 조교 선생님, 번거로운 부탁에도 도와주신 MBA 관계자분들, 그리고 자료수집에 큰 도움을 준 4대 학생회 총무부장인 성균이 형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7호 편집후기 쓰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할 지 고민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8호 편집을 마무리 짓고, 다시 편집후기를 쓸 시간이 왔네요. 사실 이번 호 편집 때는 갓 들어온 지 얼마 안되어 배우느라 정신 없이 지나갔는데, 이번 호 편집 업무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재학생으로서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에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교수님과 동문, 그리고 앞으로 사회의 주체가 되어나갈 인재들이 풍부한 우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을 대표하는 소식지인만큼 앞으로도 탄탄한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에 보답하려면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니 '효원경영'에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중서 경영대학 학장님과 조교선생님들을 비롯한 항상 도움 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호를 위해 바쁘신데 불구하고 원고 써주신 교수님들과 동문님들 또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랑 또 일하느라 힘들었을 영주언니랑 현기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파이팅!

편집후기



경영11 임영주



경영13 임현기



경영13 이나현